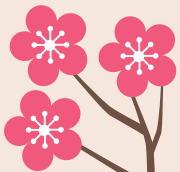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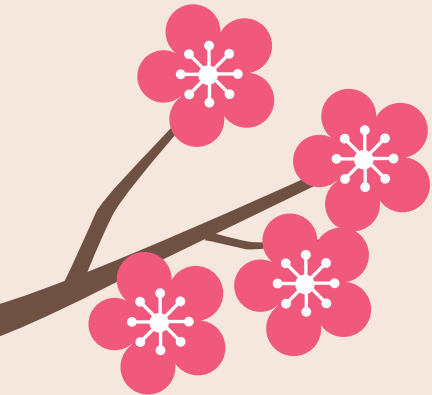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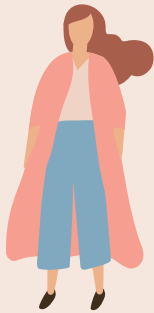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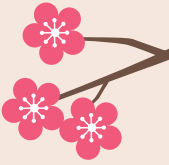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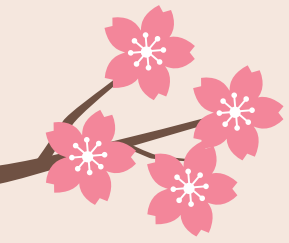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Vol.156  
2019 March / April

**Special theme**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하고 건강한,  
일상을 고민하다



#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웃음꽃을 피우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포근히 내리던 흰 눈을 남기고 겨울은 떠났습니다. 새로운 계절에 새로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대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을 맡게 된 최호순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며 산책에 나서고 뽕뽕 단아뿔던 창을 활짝 열고 싶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외부활동이 어려워지며, 이 계절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보내게 될까 아쉬운 마음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의 기본은 외부활동을 줄이고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집 안에서만 머무를 수는 없기에, 이 재난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게 많은 이들의 고민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번 스페셜 테마 역시 그 고민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특히 평소 호흡기나 심뇌혈관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3+4월호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호에는 따뜻한 날씨처럼, 환자를 생각하는 의료진의 따뜻함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베트남 빈민성으로 떠난 의료봉사팀의 소식, 오직 환자의 편의와 치료 예후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개선한 한양대학교병원의 이야기가 실려있습니다. 각 내용은 러브라이프와 한양토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의료원을 찾는 모든 분들이 보다 여유롭고 건강한 봄을 맞으시길 바라며 삶의 숨은 희망을 찾고, 일상의 행복을 활짝 피우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365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양대학교의료원 ❶

##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하고 건강한, 일상을 고민하다

'미세'한 먼지의 악영향이 거대하다. 초미세 먼지가 10ug/m<sup>3</sup> 증가할 때마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6% 높아진다. 특히 호흡기, 심뇌혈관에 의한 유병률과 사망률이 급증한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이 재난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진이 머리를 맞댔다.



### Contents

02	즐거운 편지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웃음꽃을 피우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노성원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08	Love, Life	한양대학교의료원 베트남 해외의료봉사

14	Special theme ❶	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급성 악화 예방책
16	Special theme ❷	뇌졸중 유발하는, 관리 가능 요인부터 통제
18	Special theme ❸	심혈관 질환자에게 기본 치료와 건강 유지가 관건

20	Hanyang Topic	한양대학교병원 리모델링 및 의료 서비스 개선
24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배우 김우빈과 비인두암
26	베스트 파트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협력병원 원병원
28	Dr. Opera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30	Dr. Movie	자식을 향한 부모의 거짓말, <SKY 캐슬>
32	예술과 의학의 만남	귀스타브 모로의 생애와 위암 치료의 역사
34	고마운 당신에게	신경외과 김영수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36	오늘의 건강강좌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
37	Hanyang News	베트남 떠이빈서 해외 의료봉사 외
40	언론 속 한양인	
42	발전기금	
46	한양캘린더	
47	외래 진료 시간표	



발행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홍보팀 02-2290-9532~6  
발행일 2019년 3월 13일 통권 156호 발행인 최호순 편집인 이향락 편집위원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총괄 손화선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담아  
격월간으로 펴내는 매거진입니다. 홈페이지 [www.hyumc.com](http://www.hyumc.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언제나 있다

노성원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시작이 반. 중독 치료가 바로 그렇다. 그러나 중독을 질환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다. 의지할 데 없이 마음의 병을 키우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전면에 나섰다. 그리고 그 중심에 노성원 교수가 있다. 글. 윤진아 사진. 김지원







###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보내오는 신호

진료 중 환자의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유단자 출신 중독 환자의 입원실 탈출을 막다가 같이 뒹굴어 옷이 다 찢어진 적도 있다. 다행히 치료를 잘 마치고 퇴원을 했지만, “나도 모르게 강원랜드로 차를 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는 환자의 고백은 노성원 교수에게 무거운 사명을 안겼다.

“중독은 뇌의 보상회로에 문제가 생겨 발병하게 됩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쾌락 중추가 자극되는데, 이 쾌락을 지속하고자 행동을 반복하는 게 바로 중독 행동이죠. 중독이 진행되면 충동을 억제하는 뇌기능이 마비되고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독은 회복이 쉽지 않고 만성적으로 재발하게 되죠. 어릴 때 중독을 경험하면 전두엽의 발달이 지연되고 성인이 되어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도박, 알코올, 담배, 마약, 게임 등에 중독되면 의지가 아니라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독 질환을 제때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한양대학교병원은 2016년 정신건강의학과에 중독질환 분야를 신설하고, 중독치료전문가인 노성원 교수를 영입했다. 노성원 교수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종합병원 중독의학센터 연구교수, 일본

국립 구리하마중독의료센터 연구의사,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정신보건연구과장을 역임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앙정신의학논문상(2013), 미국임상정신약물학회 신진연구자상(2012), 환인정신의학상 젊은의학자상(2011) 등을 수상하며 국내 정신건강의학 발전에 매진해왔다. “대학병원 중에서 중독질환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아요. 급성기 알코올 중독 환자의 경우 보통은 알코올전문병원이나 만성전문병원에서 장기 입원치료를 진행하는데, 한양대학교병원에서는 빠른 개입과 약물, 상담 치료를 통해 통원 치료만으로 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 중독 치료 시작은 ‘뇌질환 인정하기’

어떤 질환이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때’ 이뤄져야 한다. 중독 질환은 더더욱 그렇다. 노성원 교수는 “환자 스스로 자신이 중독임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주변에서 중독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돼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중독 질환 환자가 100명에 달한다면, 그 가운데 15명만 치료를 받습니다. 나머지 85명은 중독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다가, 모든 걸 잃고서야 병원을 방문하거나 삶을 포기하죠. 의지가 약해서,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도덕성이 타락해서 중독됐다고 생각하고 뒤늦게 치료를 받는 사례가 참 많아요. 의사와 상담만



중독치료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멈출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뛰다면  
기회가 생기고  
회복될 희망이 있습니다.



받아도 치료율이 10%로 올라가고, 인지행동치료·약물치료까지 병행하면 효과는 25~35%까지 올라가요. 조기에 다양한 치료법을 병행한다면 그만큼 회복이 빠릅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하기에 그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자를 살리고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그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재발이다. 어렵게 완치에 이른 알코올 중독 환자가 전해준 감사편지의 감동이 채 식기 전, 2주 만에 다시 만취해 병원을 찾은 모습을 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을 느끼기도 했다.

“중독은 만성 질환이면서 재발이 흔한 질병이에요.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재발했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 실수했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또 그러한 상황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인다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수나 재발 또한 회복의 과정이고, 중독치료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멈출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뛰다면 기회가 생기고 회복될 희망이 있습니다.”

**중독 치료는 ‘마라톤’이다**

한국인의 26.6%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시달린다. 나날이 다양해지는 스트레스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정신과 분야는 단기 치료가 어렵고, 치료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도 많다. 노성원 교수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진료 일정을 마치고도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달리는 이유다. 올해 새로 시작한 연구과제 <알코올 중독의 새로운 약물치료 개발> 임상시험도 곧 착수할 예정이다. 양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장,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장,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로도 활동 중인 노성원 교수는 환자 개개인의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치료 시스템 개선에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다.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알코올 중독 예방·치료·관리 사업의 자문과 운영에도 함께 머리를 맞대왔다. 보다 많은 환자가 늦기 전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시기를 놓치기 전에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제시해줄 의료진이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말에 힘이 실렸다.

“누구나 살면서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중독치료전문가로서 제게는 환자의 건강을 되찾게 하는 임무가 있고, 좀 더 나아가 중독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해 좀 더 나은 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임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건강을 해치는 각종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이웃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적극 돕겠습니다.”



## 마음 속 온기를 손끝으로 전하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베트남 해외의료봉사

2018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한양대학교의료원 봉사단원들이 베트남 빈딘성으로 떠났다.

의료봉사를 통해 우리 마음 속의 온기를 손끝으로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글. 김정난 간호사 사진. 방성주 대외홍보팀 계장



### 상처 가득한 도시, 귀눈을 찾다

봉사단원들이 도착한 곳은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빈딘성의 퀴논시. 빈딘성은 1966년 1월 13일에서 2월 26일까지, 우리나라 망호부대 3개 중대에 의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곳이다. 특히 지역 총 15개의 지점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곳 위령비에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참혹한 학살 이후 마을을 재건한 사람들은 ‘서쪽의 영광’이라는 뜻의 띠이빈(Tay vinh)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5시간의 비행과 6시간 버스를 타고 장시간 이동해 퀴논에 도착해서인지 모두의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났다. 봉사 첫날 우리는 숙소에서 1시간가량 차로 이동해 띠이빈면에 내려왔다.

8시가 되기 전인 이른 시간부터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우리 봉사단원을 기다리며 반겨 주었다. 의료봉사 일정 동안 지역 주민들은 매일 우리가 도착하기 일찍 전에 보건소로 와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고, 보건소 문 앞에는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있었다.

봉사기간 내내 우기로 비 소식이 있었지만 하늘도 우리 마음과 통하였는지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날씨가 너무 좋았다. 하루에 3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왔는데, 노인이 가장 많았고 어린아들도 있었다. 베트남이 모계사회 구조인 만큼 여성 노인들은 대부분 삼모작을 하는 농사일로 허리와 다리 통증이 많았고, 등이 많이 굽어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들어오고, 업혀서 들어오는 노인들도 있었다. 형편상 휠체어나 워커기 같은 보조기구를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었다. 앓은 채로 걸어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고 아쉬움도 컸다. 내가 알고 있던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다낭, 호치민, 하노이가 전부였는데, 이 지역은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미소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60년대와 많이 닮아 있었다.



타인에게는 베풀을 실천한 시간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씬 없이 달려오던 스스로를 되돌아 보며 우리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베트남으로 더 성장하는 기회에 감사**

신경과,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치과 교수님들과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했고, 혈액검사를 통해 질병의 원인을 감별할 수 있도록 씨젠의료재단이 지원을 했다. 그 덕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가까이할 수 있었다. 10여 년 동안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인공신장실로 부서를 옮긴 나에게는 또다시 많은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 의료봉사 기간 내내 설레고 활기가 넘쳤다. 첫날은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 우왕좌왕했지만 둘째 날부터는 모두가 하나되어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줬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즐거움이 더 많았던 의료봉사였고, 우리 모두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는 시간들이었다. 타인에게는 베풀을 실천한 시간이었다면, 우리에게서는 쉽 없이 달려오던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우리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데에 감사하게 되었다.

비록 학살이라는 역사의 아픔이 있었지만, 이번 봉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단이 되었으면 한다. ‘미안해요 베트남’보다는 ‘함께 해요, 사랑해요, 베트남’ 그리고 ‘고마워요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우리 모두 감언(Cảm ơn)! 🇰🇷

## 해외의료봉사 활동 리포트

“오늘의 봉사가 내일의 더 멋진 봉사를 준비하는 길이 되길”

-의료봉사단장 김용주 교수



저는 소아청소년과 환자들을 진료했는데, 12세 어린이의 체중이 25kg, 신장이 130cm 정도로 작은 체형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비누와 치약이 없는 집이 많아서인지 귀와 피부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충치로 고생하는 아이들, 머릿니가 있는 아이들, 수술을 받았으나 정기 진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이 발생한 아이, 제대로 된 약제가 없어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눈에 밟힙니다. 백내장과 근시, 노안, 감염성 안질환 등 안과 질환과 내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향후 안과와 내과 전문의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위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되면 좋겠네요. 이런 소망이 다 이루어지려면 모두가 노력해야겠지요(웃음).

“고엽제 피해자에겐 치료만큼 위생과 영양 관리가 중요해요”

-고엽제 피해자 100여 명을 치료한 김희진 교수



고엽제 관련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려웠지만, 실제로 진료를 한 환자들 중에서는 신경계통에 일으키는 병증 가장 흔한 질환인 파킨슨 환자가 10%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유병률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환자들의 위생과 영양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았고, 혈압도 악성 고혈압(200 이상)인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신경계통의 여러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신경계통의 질환을 진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베트남의 위생이나 건강 관리, 식이조절 관련 교육이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 추후 관리를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해외의료봉사단

김용주 교수(단장,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박해영 교수(한양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 치과팀

이은혜 교수, 노성수 전공의  
김태희·원지혜 의료기사  
(한양대학교병원 치과)

### 간호팀

홍은미 파트장, 김정난·김연수·주수정 간호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간호국)

### 운영지원팀

김대희 팀장, 방성주 계장(의료원 대외홍보팀)  
김정태 계장(한양대학교병원 기획팀)

### 고엽제 피해자 진료팀

김희진 교수, 최경희 연구간호사(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이규훈 교수, 윤여준 전공의(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 특징

- 5일 동안 1,337명 진료
  - 디케이킴코리아재단에서 고엽제 피해자 진료를 위한 후원
  - 의약품 및 현지 의약품 구매를 위한 협찬
- (룬트백 코리아, 유한양행, 보령제약, 제일약품, 일동제약, 씨젠의료재단)



#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하고 건강한, 일상을 고민하다

언어는 그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동시대의 사회문화 트렌드가 고스란히 언어에 스며들기 때문. 최근 등장한 신조어 가운데 눈에 띄는 말은 ‘삼한사미(三寒四微)’다. 3일간 춥고 4일은 따뜻하다는 ‘삼한사온(三寒四溫)’에서 비롯된 것으로,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이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 일상의 흔한 재난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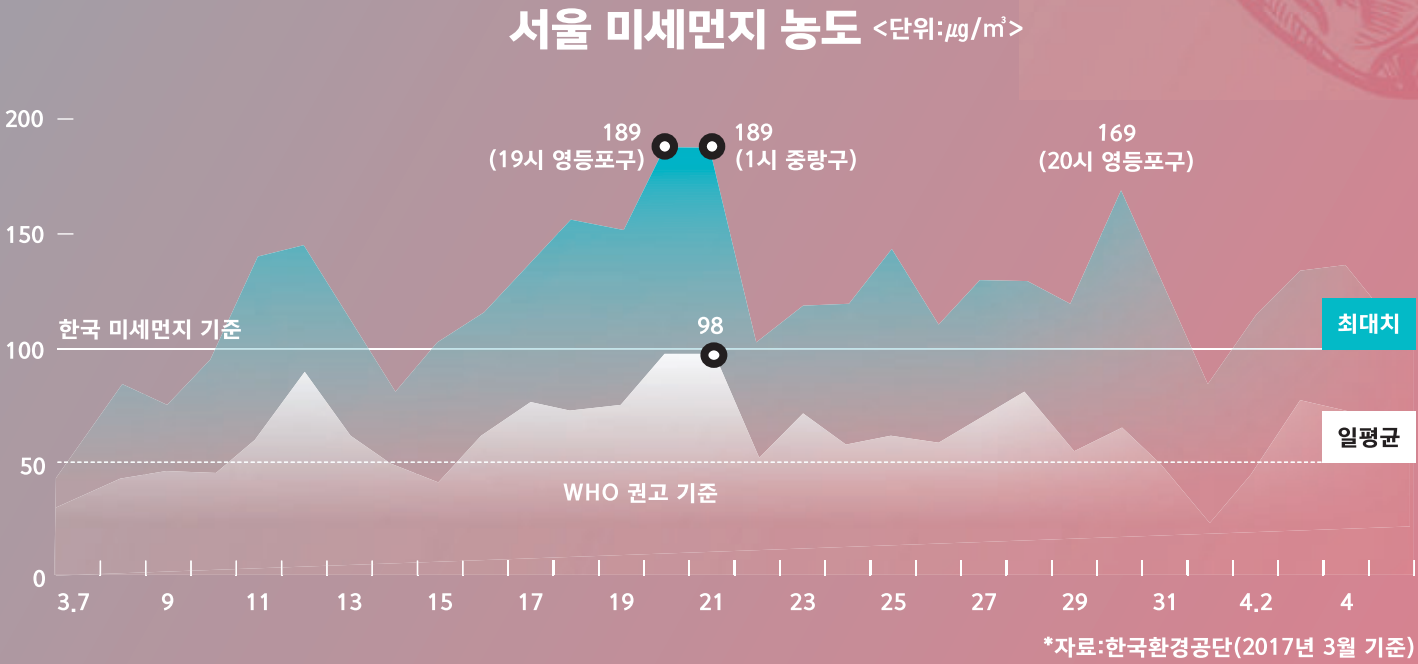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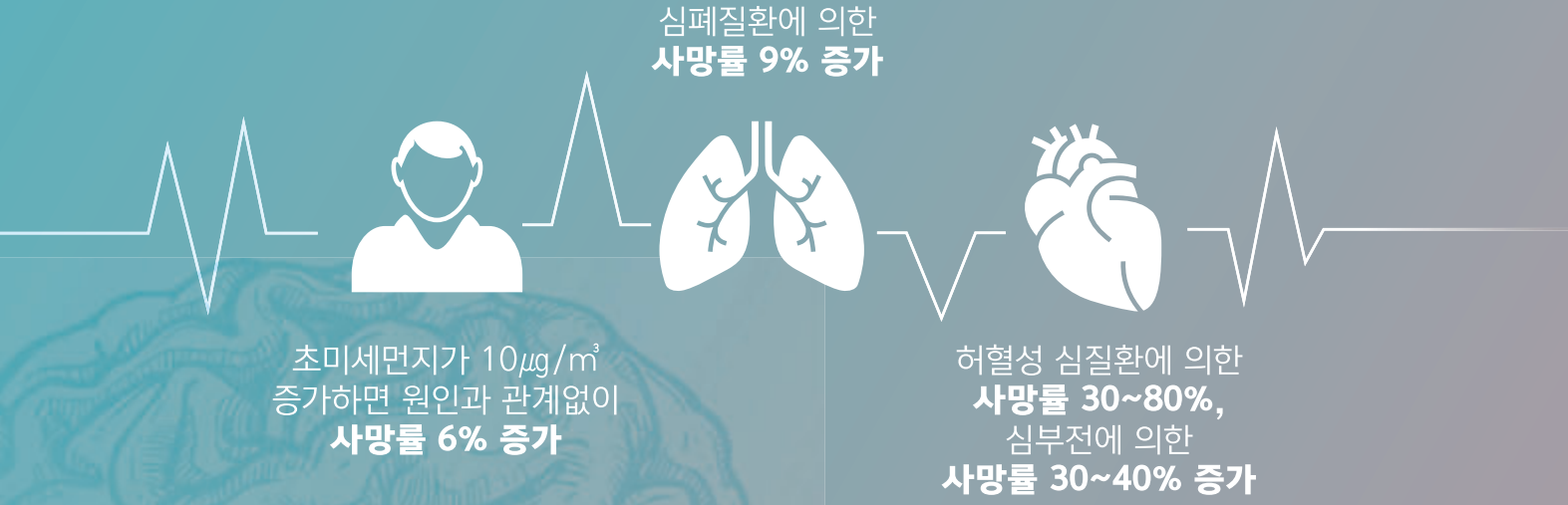
미세먼지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먼지 등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것이 더해져 극심한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기온이 오르는 봄에는 중국이 있는 서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동시에 중국발 황사까지 몰려온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아주 ‘미세’해 잘 걸러지지 않는다. 코나 입을 통해 호흡기로 전달되고 체내에 축적된다. 미세먼지와 직접적으로 닿는 눈이나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에 포함시켰다.

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 매일 조금씩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개인적인 노력이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이 되었다.

##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의 유병률, 사망률 증가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하고 건강한, 일상을 고민하다



## 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급성 악화 예방책

만성폐쇄성폐질환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법



글. 이현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초미세먼지 (PM2.5)가 10 $\mu$ m 증가할 때마다 심폐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9% 증가한다**

### ‘미세’먼지가 호흡기질환에 미치는 ‘큰’ 영향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5 가량인 10 $\mu$ m이하의 지름을 가지는 작은 입자다.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mu$ m인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하고 2.5마이크로미터인 미세먼지는 PM2.5라고 한다. 여기서 PM은 Particulate Matter, 미세먼지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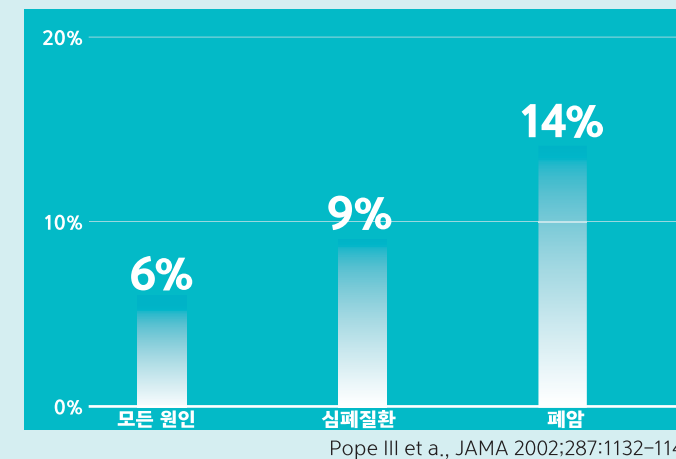
이렇게 작고 고운 ‘미세’한 입자는 이름과 반대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2002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PM2.5가 10 $\mu$ m 증가할 때마다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사망이 6% 증가하는데, 심폐질환에 의한 사망은 9%, 폐암에 의한 사망률은 14%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후 미세먼지가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암, 특발성 폐섬유증 등의 발생과 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다.

### 미세먼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를 유발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담배와 같은 독성 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비가역적 기도 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 호흡기질환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폐기능 감소와 만성적인 기도 염증으로 평소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평소보다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는 급성 악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급성 악화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거나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를 중증 급성 악화라고 하는데, 중증 급성 악화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중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이렇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 급성 악화를 일으키는 주요 인자 중 하나이다. 2008년 Sint와 동료들은 이전에 시행된 여러 연구를 분석한 종설에서 PM10과 PM2.5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 급성 악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 미세먼지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최근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중증 급성 악화의 연관성을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다. 연구에 의하면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급성 악화와 가장 연관이 있었던 미세먼지의 농도는 입원 당일이 아니라 3일 전의 미세먼지 농도였다. 이는 미세먼지 노출과 임상적 발현 사이에 지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은 환자분들은 미세먼지에 노출된 당일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과 폐에 염증반응을 유발하여 며칠 후 입원할 정도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자는 마스크 사용에 주의 필요

미세먼지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평소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함이 심한 환자들이라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호흡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출 시 호흡 곤란이 악화되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를 준비하여 외출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 귀가하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겨울과 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독감 및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의한 호흡기 감염도 많다. 때문에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 역시 겨울과 봄에 급성 악화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특히 이 계절에는 급성 악화에 주의하도록 하고, 13가 또는 2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고 매년 가을철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하고 건강한, 일상을 고민하다



## 뇌졸중 유발하는, 관리 가능 요인부터 통제

미세먼지로 발병률 높아지는 뇌혈관질환



글. **한명훈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 미세먼지가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고 부정맥을 유발하여 뇌혈관질환의 발병 가능성 높인다

### 혈관으로 흡수되는 미세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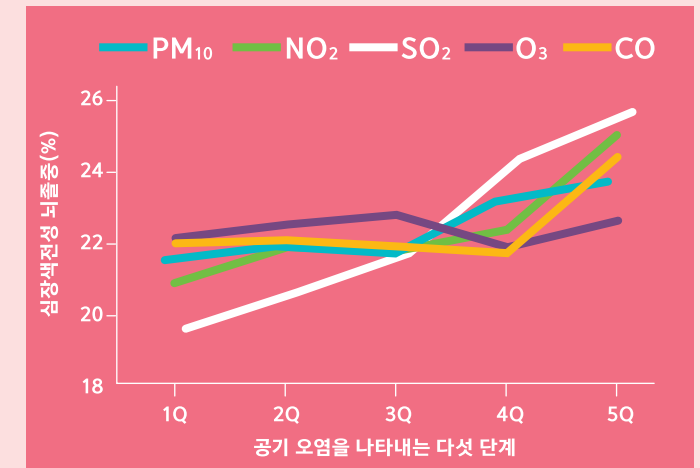
인간의 삶과 건강은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기온, 강수량, 일교차 등 기상 인자들을 비롯해 대기오염 인자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등과 여러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며 근거 수준도 올라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봄철 중국 사막지대로부터 날아오던 황사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공기질은 깨끗한 편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를 지나며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화석연료 연소, 공장 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대기질이 심각하게 나빠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고, 혈관으로 흡수되어 심장질환 및 뇌혈관을 비롯한 여러 혈관 관련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

### 미세먼지와 뇌혈관질환의 관계

최근 미세먼지와 뇌졸중(뇌경색 및 뇌출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빅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은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과 가장 연관이 높았다. 또 여러 국내 연구들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뇌경색 및 뇌출혈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높인다고 한다.

현재까지 보고된 근거 수준이 높은 미세먼지와 뇌혈관질환의 관계에 대해 가능한 기전은 다음과 같다. 1)미세먼지가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혈관 내 혈전을 유발할 수 있음. 이는 뇌경색 및

### 미세먼지와 뇌혈관질환의 관계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킴. 2)미세먼지가 부정맥을 유발하여 뇌혈관의 색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의 발병 가능성을 높임. 그 외에도 전신 염증 반응 및 혈액응고의 촉진 등과 같은 기전들도 제시된다. 앞으로도 연구 결과들이 더 쌓여야겠지만 데이터들이 축적됨에 따라 미세먼지가 뇌혈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근거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생활습관 교정과 뇌졸중 증상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

미세먼지는 개인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뇌졸중 위험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실내 대기오염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기에, 집에 있거나 운전하는 경우에는 가정용 또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을 이용해 공기질을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요인들을 실천하여 예방하는 것이다. 흡연은 강력한 뇌졸중 유발인자이기 때문에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 술 1~2잔 정도는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음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및 혈관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해야 한다. 평소 혈압 및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해 고콜레스테롤 음식이나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비만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뇌졸중은 일단 발병하면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뇌졸중 증상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게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교육하도록 하자. 🧠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하고 건강한, 일상을 고민하다



## 심혈관 질환자에겐 기본 치료와 건강 유지가 관건

미세먼지로 발병률 높아지는 심혈관질환



글. **신정훈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심장내과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30~80%  
증가하고  
심부전에 의한  
위험 역시  
30~40%  
오른다**

### 미세먼지, 심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높인다

미세먼지는 그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사람이 들이마시면 건강상의 여러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에 의해 매년 80만 명 정도가 평균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망한다. 초미세먼지는 이제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3번째를 차지한다.

미세먼지는 심근경색을 포함한 기존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직경  $2.5\mu\text{m}$  이하의 초미세먼지에 수 시간 혹은 수 주간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심혈관질환이 생길 수 있으며, 장기 노출은 단기 노출에 비해 심혈관질환 관련 사망률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단기 거주할 때보다 심혈관질환 상대 위험도가 많게는 76%까지 높아진다는 코호트 연구가 보고되었다. 초미세먼지  $10\mu\text{g}/\text{m}^3$  상승 시 허혈성 심질환 발생의 상대 위험도가 18% 증가하고 심부전에 의한 입원율이 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질환의 사망률은 30~80% 증가할 수 있고 심부전에 의한 사망률 역시 30~40% 증가하며 허혈성 뇌졸중 및 이에 의한 사망률은 많게는 80%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초미세먼지에 따른 대기오염이 부정맥을 증가시킨다는 몇 가지 연구도 있다.

### 심질환 환자가 미세먼지의 피해를 줄이려면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잘 유지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각종 심질환 및 허혈성 뇌졸중을 유발 혹은 악화시키는데 이는 혈압을 높이거나 교감신경계 활성화에 의한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임상적 영향은 건강한 정상인보다 75세 이상의 고령이나 당뇨, 비만 등 고위험군 환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통적인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은 외출 후 실내에 들어오면 손발과 얼굴을 깨끗이 씻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도 감염과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전신 염증 반응에 의해 유발되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여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특히 출퇴근 시간 등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가급적 창문을 닫고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식약처에서 승인 받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예방적 약제는 아직 입증된 것이 없으나 항산화 효과가 있는 식이요법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내에서는 흡연을 삼가고, 음식물 조리 시 초미세먼지가 증가하므로 환기를 자주 시키거나 환풍기를 작동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





# 환자를 더 잘 볼 수 있게, 환자가 더 잘 나올 수 있게

한양대학교병원 리모델링 및 의료 서비스 개선

시대 변화에 따라 좋은 병원이 갖춰야 할 ‘기본’도 진화하고 있다. 우수한 의료진과 쾌적한 시설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양대학교병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차이’에 집중했다. 병원에 머무는 환자의 편의를 고려한 섬세한 배려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이끌고 있다.

글. 정라희 사진. 정우철



##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

한양대학교병원 구석구석이 조용히 변모하고 있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병상 간격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더욱 효율적으로 감염 예방을 관리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병상 간격 기준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은 2018년 말까지 일반 병실 1.5m, 중환자실 2m 이상 병상 간격 조정을 완료해야 했다. 이론적으로는 기준에 맞게 병상 위치만 옮기면 될 일. 그러나 한양대학교병원은 이를 계기로 의료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환자의 돌봄 수준을 높이는 다각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1972년 개원 이래로 꾸준히 환경을 개선해왔지만, 202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는 좀 더 이 시대에 적합한 병원 구성을 갖추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3차 의료기관의 위상에 맞는 진료를 하려면 환경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죠. 마침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이를 계기로 전면적인 시설 보강에 나섰습니다.” 병원측이 리모델링과 함께 의료 서비스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리모델링의 초점은 ‘환자를 더욱 잘 치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었다. 환경이 개선되면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도 좋아진다. 그렇게 한양대학교병원은 ‘디테일’에 집중하며 변화를 모색했다.

##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먼저 중환자실을 개선했다. 한양대학교병원이 서울 동남권 권역 응급센터로 지정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중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있던 터였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지상 1층~지상 6층 규모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축에 나섰다. 2017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용 응급수술실 조성공사를 시작했다. 또, 본관 6층에 10개 병상 규모의 응급중환자실을 추가 조성했다. 단순히 병상만



“3차 병원은 1·2차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감염 관리를 하려면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병행돼야 합니다. 시설 개선은 병원의 인증평가에도 반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환자를 잘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병원 본연의 사명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

증설한 것이 아니다. 병상마다 의료용 팬던트를 설치해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케어 시스템을 구성했다. 팬던트 시스템은 의료 전선과 가스, 모니터, 인공호흡기 등의 장비를 천장에 설치해 필요 시 바로 내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후에도 한양대학교병원은 병실 병상 간격 조정을 비롯해 내·외과 중환자실 리모델링, 음압격리병실 조성공사를 마쳤다. 현재 한양대학교병원에는 모두 여섯 곳의 음압격리병실이 있다. 기압을 일반보다 낮게 설정해 해당 병실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감염 관리에 효과적이다. 한양대학교병원은 걸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챙겼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요즘 대기환경 상황에 맞게 HEPA필터를 적용한 공조시스템을 설치했다. 그 밖에도 심혈관 집중치료실 이전공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조성, 주차타워 개보수, 본관 3층 복도 천장 교체를 이어가며 진료의 효율성과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달라진 환경, 올라가는 환자 만족도

병원 진료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공사를 이어가기란 쉽지 않은 일. 그러나 ‘변화는 필연’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부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설계 단계에 직원들이 참여해 최적의 공간 구성을 고민했다. 더불어 병원 전문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 보건복지부 규정에 적합한 규격과 동선을 완성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본관 20층에 이어 12층에 추가로 마련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서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동에 있지 않더라도 환자는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6명을 권역별로 간호하며, 중증환자의 경우 간호 인력을 조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본관 12층에만 81개 병상이 있으며, 73명의 간호 인력과 6명의 지원 인력이 배치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강영의 파트장은 “스테이션 외에도 병동 곳곳에 서브 스테이션을 설치해 간호사가 상주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 효율을 높였다”고 말한다. 한편, 본관 7층의 심혈관 집중치료실은 두 개의 스테이션을 운영하며 응급상황 심전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김연주 파트장은 “심혈관 집중치료실을 이전하면서 침상 간격이 넓어졌고, 병상 수도 7개로 늘어났다”고 전한다.

한양대학교병원의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으로는 외래 환경 개선 공사에 나설 예정. 더욱 쾌적한 진료 환경과 안전한 시설 환경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의 발전을 응원한다. 🌐



**본관 12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81개 병상 증가,  
 간호사 1명당 환자 6명 간호



**본관 6층 응급중환자실**  
 10개 병상 증가



**심혈관집중치료실**  
 7개 병상으로 증가



# 코피 잦고 귀 답답한 느낌, 암의 증상일수도

배우 김우빈과 비인두암

187cm의 큰 키와 다부진 체격, 개성 있는 외모와 부드러운 연기력으로 사랑 받는 배우 김우빈.  
런웨이와 스크린을 오가며 종횡무진 활동하던 그가 2017년 5월 활동을 돌연 중단했다. 비인두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비인두는 코 안, 깊은 곳에 위치해 보이지 않는 부위며 비인두암은 여타 암 질환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정리, 편집실



대한민국 남성 모델들이 꼭 한 번 서보고 싶어하는 무대가 있다. 바로 디자이너 김서룡의 패션쇼다. 김서룡은 수트의 명장이라고 불리는 남성복 디자이너이다. 김우빈은 2008년 그 꿈의 무대에서 첫 런웨이를 걸었다. 명성 높은 무대에서 데뷔한 김우빈은 그 때를 시작으로 탄탄히 모델 경력을 쌓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TV 드라마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SBS <신사의 품격>에서 김하늘의 제자로 존재감을 뽐냈고 KBS <학교 2013>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연이어 출연한 SBS <상속자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스타로 떠오른 그는, 당시 20대 후반 남자 배우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렇게 탄탄히 경력을 쌓을 것 같던 그의 상승세에 제동을 건 것이 ‘비인두암’이다. 김우빈은 비인두암 진단과 함께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그의 소속사는 “김우빈이 여러 스케줄을 소화하던 중 이상 징후를 느끼고 병원을 방문했고 비인두암 진단을 받았다”며 “다행히 치료가 늦지 않은 상태라 현재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다. 치료해 전념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비인두는 입을 열면 보이는 목젖 뒤쪽 윗부분을 칭한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위며 호흡 시 공기가 지나다니는 통로 역할 외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이 발생해도 초기 증상이 없다. 증상은 어느 정도 암이 진전되었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됐을 경우에 나타난다. 김우빈의 경우 몸의 이상 증상을 느낀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했으나, 다행히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우빈과 연인 신민아의 데이트 장면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그에 앞서 김우빈은 자신의 팬 카페를 통해 “세 번의 항암 치료와 서른다섯 번의 방사선 치료를 무사히 잘 마쳤다”며 “주기적으로 추적검사를 하며 회복하고 있다”라고 근황을 알렸다. 이를 계기로 한 동안 김우빈이 곧 복귀할 것이라는 추측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에 소속사는 “김우빈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복귀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우빈의 모습을 아직은 볼 수 없지만, “어느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건강하게 인사드리겠다”는 약속과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 머지않아 그가 암을 완치하고 돌아올 것을 믿는다. 🍀

방사선요법이 주 치료법,  
초기 발견 시 생존율 높다



지용배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비인후과



## 비인두암이란

비인두는 코(비강)의 후방으로, 목젖의 후상방 부위를 가리킨다. 비인두암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중국 광둥 지역에서는 10만 명당 30명 이상으로 높은 발병 빈도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드물어 2014년 한 해 364명에게서 발생했다.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3배가량 많이 나타나며, 40~60대가 가장 많다. 조직학적으로는 95% 이상이 미분화암에 속하지만 드물게 악성림프종이나 침샘기원 종양이 발생하기도 한다. 원인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추정하며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stein-Barr virus)의 감염이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다.

## 비인두암의 증상과 진단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종양이 자라면 코가 막히거나 코피가 발생하고, 전이가 발생하면 목의 림프절이 커지며 이때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또 비인두 측벽의

이관을 막게 되면 귀가 먹먹한 증상이나 반복적 중이염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주변 뇌신경을 침범하면, 외전신경에 장애가 생겨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는 증상이나, 삼차신경이 압박되어 일어나는 동통이 많이 나타난다. 비인두암은 원격 전이가 많이 일어난다. 폐 전이에 의한 흉부X선 사진상에 나타나는 이상음영, 뼈 전이에 의한 뼈의 통증, 간 전이에 의한 복부초음파검사에서의 이상음영 등을 통해 원격 전이가 비인두암보다 먼저 발견되는 일도 있다. 비인두암은 이비인후과 내시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데 대개 진찰실에서 국소마취해 시행한다. 때로 경부림프절에만 암이 있어 비인두에 변화가 없는 경우라도 비인두가 원발 부위라고 생각될 때는 정상 부위의 조직을 채취하기도 한다.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점막 아래에 암 조직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암이 확인되면 침범 또는 전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CT, MRI를 중심으로 방사선 진단을 실시하며, 최근에는 PET-CT가 원격 전이를 발견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비인두암의 진행 정도가 파악이 되면 암의 전전 범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서 병기를 결정한다.

## 비인두암의 치료와 예후

비인두는 수술적으로 종양을 제거하기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방사선요법이 주 치료법이 된다. 경부림프절 전이의 경우도 방사선요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항암제를 이용한 항암화학요법을 보조치료 수단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방사선과 항암화학요법에서도 없어지지 않을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비인두암 치료 후의 5년 생존율은 초기 80%대에 이르나 진행된 경우는 30~40%까지 떨어진다. 따라서 어느 병이든 마찬가지로 지이지만 비인두암 역시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도록 하자.





##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욱 적절한 치료를!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협력병원·원병원

근처에 좋은 병원이 있으면 당장 아픈 곳이 없어도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자리한 원병원은 지역의 대표적인 중견병원으로, 최선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민들에게 수준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 정라희 사진: 김재이

#### 급성질환부터 만성질환까지 두루 아우른다

예상하지 못한 통증이 찾아올 때나 만성질환으로 자주 병원을 찾아야 할 때, 이 지역 사람들은 ‘원병원’을 먼저 떠올린다. 1995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서 최초 설립된 원병원은 이후 1997년 3월에 이곳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이전, 20년 이상 지역 의료 서비스를 책임져왔다.

“남양주시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 지역입니다. 남양주에서도 금곡동 같은 곳은 구리시와 가까워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쉽게 갈 수 있고, 남양주시 오남읍이나 진접읍 인근에도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있어요. 하지만 이곳 화도읍은 물론 근처 경기도 가평이나 청평에는 중·대형병원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근 지역의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원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민 대표원장이 원병원의 지역 내 존재감과 책임감을 예들려 전했다. 150병상 규모의 중견병원이지만, 원병원의 구성은 대형병원 못지않게 탄탄하다.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을 비롯해 중환자실, 건강증진센터, 소화내시경센터, 장례예식장 등 지역사회가 병원에 기대하는 의료 체계와 연관 서비스를 두루 제공하고 있는 것. 내과부터 일반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임상병리과 등 전문적인 진료의 기본이 되는 전문의 층도 두텁다. 또한, 물리치료실과 특수검사실과 함께 다양한 특수 클리닉을 운영하며 환자 치료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마련했다. 급성질환은 물론 만성질환까지도 한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셈이다.



#### 환자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잇는 징검다리

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노년층을 비롯해 개발 붐을 타고 새로 이주한 젊은 층도 원병원에 찾아온다. 세대마다 만족을 느끼는 의료 서비스의 형태가 다르기에, 원병원은 섬세하게 환자들의 반응에 귀 기울이며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의 진료’라는 기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다.

“상태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자주 의뢰를 하곤 합니다. 진료협력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입원실이 없으면 한양대학교병원까지 연계해 주십시오. 진료 후에 받아보는 진료회신서도 무척 꼼꼼하게 기록해 주셔서 환자들이 원병원에서 후속 진료를 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박근민 원장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열리는 연수강좌에도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전한다. 그 역시 수년간 대학병원에서 내과 교수로 생활했음에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교수진을 통해 최신 의료 동향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역량 강화에 힘쓴다.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들은 2차 의료기관에서 보기 힘든 중환자들까지 치료해야 하는 책임감이 큼니다. 그 고충을 알기에 항상 환자들을 보낼 때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원병원에서도 2차 의료기관으로서 본분에 충실하며, 필요할 때는 환자와 대학병원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잘해나가야죠.”

앞으로도 원병원은 지역사회의 중심 병원으로서 최적의 치료와 함께 적절한 간병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가려고 한다. 멀리 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



원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943-16 문의 031-590-3114



## 상류사회의 애정 없는 결혼과 졸부 근성을 비웃는 풍자극

# Dr. Opera



###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Johann Strauss II Operetta <Die Fledermaus>

세계의 오페라 극장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에 오페레타 <박쥐>를 자주 무대에 올린다. 화려한 춤과 음악, 유머 넘치는 대사들이 한 해의 근심과 고통을 다 털어버리게 해주기 때문이다. 오페레타 <박쥐>는 스토리도 재미있지만, 슈트라우스의 왈츠와 폴카가 들어 있어 더욱 신나고 활기가 넘치는 작품이다. 율리우스 로데리히 베네딕스의 희극 「감옥」을 읽고 그 풍자와 익살에 매료된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이를 오페레타로 만들면서 왈츠의 황제답게 무대를 무도회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진지한 내용의 희극을 패러디한 설정으로 봉건주의에서는 무자비한 억압과 박해가 이루어지던 감옥이 시민사회에서는 이처럼 희극적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귀족의 몰락과 시민 시대가 열리는 전환기에 평민의 일상이라는 소재에 익숙해 있던 관객들은 이 상류사회의 내용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을 하지 않고 엄청난 이자 소득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귀족사회에 속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졸부 근성의 남자주인공, 남자의 재력을 보고 결혼하고는 남편을 경멸하며 살아가는 속물 아내, 연예계로 진출하고 싶은 부잣집 하녀 등 당시 빈 상류사회의 가식과 허영에 대한 풍자에 음악적 에로티시즘이 더해져 최고의 오페레타가 되었다. 오페레타(Operetta)란 ‘작은 오페라(Opera)’라는 뜻으로 ‘오페라보다 쉽고 가벼운 작품들’을 말한다. 오페레타의 소재는 대개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루고 있어 누구든지 바로 이해할 수 있고, 희극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오페라처럼 작품 전체가 음악으로 작곡된 것이 아니라 노래 외에 대사도 있고, 춤이나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거의 빠짐없이 들어간다. 대표적인 오페레타 작곡가인 자크 오펜바흐는 1866년 초연한 <파리지엔의 삶>을 비롯해 <지옥의 오르페>, <아름다운 헬레네> 같은 걸작 오페레타를 남겼고 20세기 들어 프란츠 레하르의 <메리 위도우>로 더욱 발전시킨 빈의 오페레타는 점차 현대의 뮤지컬로 발전하게 된다.

#### 오페레타 <박쥐>의 두 가지 이야기

오페레타 <박쥐>는 화려한 폴카풍 서곡에 이어 두 가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남자 주인공인 금융계의 부호 가브리엘 폰 아이젠슈타인이 4년 전 친구인 공증인 팔케 박사와 함께 가장무도회에 놀러갔다가 다음날 새벽 술에 잔뜩 취해 잠든 팔케를 그냥 거리에 내버려둔 채 혼자 마차를 타고 돌아가버렸다. 박쥐로 분장하고 무도회에 갔던 팔케는 출근길 행인들에게 흠측하고 우스꽝스런 박쥐모습으로 발견되어 망신을 당했다. 그 일을 잊지 못하는 팔케는 아이젠슈타인에게 보복하려는 계락을 꾸미면서 아이젠슈타인 주변 인물들을 모두 오를로프스키 공작의 저택무도회에 초대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를로프스키 공작 저택에 등장인물들이 모두 모이면서 시작되는데 세무서 직원과 싸우다 폭행한 죄로 아이젠슈타인은 8일간의 간이 구류 처분을 받는다. 친구 팔케의 유혹에 넘어가 그와 함께 무도회에 가서 하룻밤 신나게 놀고 감옥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이때 평소 애정도 없는 부부가 ‘눈물의 이별’을 가장하는 삼중창은 대단히 희극적이다. 아이젠슈타인의 아내 로잘린데는 남편이 집을 나서자 곧 집으로 찾아온 옛 애인 알프레드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형무소장 프랑크가 아이젠슈타인을 데려가려고 찾아왔다가 애인을 남편으로 알고 연행한다.

애인이 사라지자 할 일이 없어진 로잘린데는 무도회에 가고, 하녀 아델레도 초대장을 받아 몰래 로잘린데 옷을 훔쳐 입고 공작 저택에 나타난다. 아이젠슈타인이 아델레를 보고 자기 집 하녀와 꼭 닮았다고 말하자 아델레는 ‘존경하는 후작님’이라는 아리아로 망신을 준다. 헝가리 귀족부인으로 가장하고 나타난 자기 아내 로잘린데에게 한눈에 반한 아이젠슈타인은 늘 하던 대로 예쁜 회중시계를 미끼로 그녀를 유혹한다. 로잘린데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물증을 확보하려고 그 회중시계를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아버린다. 로잘린데의 차르다시 ‘고향의 노래여’는 이 오페레타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다. 오를로프스키 공작은 파티 손님들과 더불어 ‘삼페인의 노래’를 부르고, 팔케는 ‘당신과 나, 형제자매가 됩시다’라는 노래를 선창하자 파티는 절정으로 치닫고, 손님들은 다 함께 ‘천둥번개 폴카’와 ‘박쥐 왈츠’에 맞춰 한바탕 춤을 추고 아침 6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리자 손님들은 다들 급히 파티 장소를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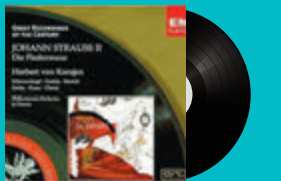
무도회에서 잔뜩 취한 채로 아이젠슈타인이 아침 일찍 감옥으로 오자

형무소장은 이미 아이젠슈타인이 들어와 있다고 말한다. 이때 애인을 면회하려고 로잘린데가 나타나자 아이젠슈타인은 변호사로 변장하고 감방에 들어가 둘 사이의 진실을 알아내고는 아내에게 속았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그러자 로잘린데도 이에 질세라 회중시계를 꺼내 보이며 남편의 부정을 비난한다. 이제 팔케가 무도회 손님들을 다 거느리고 형무소에 찾아와 간밤의 모든 일이 자신의 유쾌한 복수극이었다고 설명하자 로잘린데는 용서를 비는 남편을 받아들이고, 손님들은 다 함께 합창을 노래하며 막을 내린다. 🎵

#### 들을 만한 Album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EMI, 1955)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지휘), 니콜라이 게다(아이젠슈타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로잘린데), 리타 슈트라이히(아델레), 에리히 쿤츠(팔케)



#####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DG, 1975)

카를로스 클라이버(지휘), 헤르만 프라이(아이젠슈타인), 줄리아 바라디(로잘린데), 루치아 포프(아델레), 베른트 바이클(팔케), 르네 콜로(알프레드)



##### 빈 슈타츠오퍼 (Decca, 1950)

클레멘스 크라우스(지휘), 율리우스 파차크(아이젠슈타인), 힐데 귀덴(로잘린데), 빌마 리프(아델레), 알프레드 포헬(팔케), 안톤 데르모타(알프레드)



####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 천공의 성, <SKY 캐슬>이 남긴 것들

# Dr. Movie



### 자식을 향한 부모의 거짓말

서울의대에 합격했던 집안의 자랑거리 아들이 돌연 잠적하자 충격을 받은 엄마가 저승사자 같은 올 블랙의 코디네이터와 만난 후 설원에서 자살을 하던, 짧고도 긴 순간. 총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까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는 팝송인지 가요인지 모를 아름답고 몽환적인 노래가 흘러나온다. “We all lie(우리 모두 거짓말을 해)”. 이 장면 이후로 20회 미니시리즈는 시네마틱 드라마를 넘어 가히 드라마틱 시네마가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에서 아빠가 차지하는 가족 내 위상은 애매하다. 월급은 통장을 통해 그대로 엄마에게 전달되어 잠시라도 아빠의 수고를 음미해 볼 기회는 박탈 당하고, 자녀의 교육 역시 엄마가 학원과 상의하여 모든 것을 관리한다. 아빠는 지분은 갖고 있되 주주총회를 통해 연말실적을 접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주식회사의 무기력한 거수기이자 허울뿐인 주주다. 엄마(전업주부인 경우 더 심함) 역시 스스로의 주체적인 삶을 충전하는 정신적 보양식은 꿈도 꾸지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자식을 태어나면서부터 트렌드에 맞게 키워내며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통한 이상적인 자아를 일구어내면서 껍데기뿐인 삶에 대리만족을 하며 살고 있다. 이 혼돈 속에 아이의 정체성과 희망은

설 자리를 잃으며 공교육이어야만 가능한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는 피상적으로 변질된다. 대학이 뭐길래, 의대(극 중에서는 유일무이한 서울의대만 존재)가 도대체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장하길래.

<SKY 캐슬>이 뜻하는 바는 정확치 않다. 잘 사는 전문직 부모들이 모여 사는 문턱이 높은 가상의 주거지(아파트도 아닌 타운하우스)를 뜻하는 것 같은데, 주구장창 서울의대만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서연고를 뜻하는 SKY는 아닌 것 같다. 따지고 보면 나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의대를 지망하던 고등학생 아들은 부모 둘 중의 하나(?)로부터 자연스럽게 세뇌된 것 같아 진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고, 고생 끝에 재수하여 들어간 의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반수를 시킨 아내를 강력히 제지하지 못했다. “당신이 나온 학교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착각하지 말라”는 아내의 명징한 서열정리에 나는 가슴 속 깊숙한 이류 대학 출신의 열등감을 황망히 감추어야 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는 이류가 아닌 일류가 되기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줄길(“한 문제만 더 맞춰라”) 바랬던 것 같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그러고는 이러한 바람을 애정의 발로라고 착각한다. 아이들은

그래서 불행해진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잘난 부모들은 대를 이은 가업의 전수를 하늘에서 위임 받은 것이라 자기합리화 시킨다. <SKY 캐슬>을 무늬만 영화인 채 드라마에 머문 시네마틱 드라마가 아닌 영화적 장치를 덧입힌 드라마틱 시네마로 규정한 이유는 현실을 뛰어넘는 극적 전개 이외에도 섬세한 미술과 음악의 사용, 공들인 카메라 워킹이란 신공이라 말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의 집은 각자 지향하는 바를 그대로 투영한다. 신분 상승에 목숨을 건 한서진의 화려하지만 어둡고 복잡한 집안 구조, 가부장적인 차민혁 교수의 단정하면서도 차가운 블랙으로 일관되었지만, 일탈을 꿈꾸는 나머지 가족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기이한 톤 앤 매너, 자유로운 그러나 이전 교생 시절 회개의 성격이 가미된 소설가 이수임의 높은 천장이 돋보이는 환한 집안 분위기, 중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진진희의 값비싼 가재도구로 넘쳐나는 유리로 가득 찬 집안.

카메라는 넓디 넓은 타운하우스를 안정적으로 비추면서 전신과 바스트를 오가다가 어느 순간 액션씬처럼 흔들리는 핸드헬드 카메라로 클로즈업, 정면이 아닌 사면을 비추고는 그것도 모자라 등장인물이 아닌 그를 비추는 거울(대개 정면이 아닌 측면, 사면)을 불안하게 흔들거리며 찍어댄다. 일부러 균형과 비례를 벗어난 접사는 한서진과 해나가 내뱉는 말들이 거짓말처럼 들리게 만든다.

주제를 대리하여 서브 텍스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음악은 드라마의 화룡점정이다. 절대악의 화신인 김주영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들리던 슈베르트의 마왕은 신의 한 수였다. 아이(예서)를 데려가려는 마왕, 두려움에 떠는 아이,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아버지의 위로는 결국 아이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차민혁 교수가 무너지는 순간 나오던 라벨의 볼레로는 재미있다. 볼레로는 악단 구성원들이 부분적으로 합쳐지면서 절정을 향해 달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선율의 해체가 특징이다. 그의 별명 ‘차파구’에 걸맞는 곡이다. 차민혁이 만든 공부방을 부수는 아내 노승혜의 망치질에 조금씩 드러나는 헛살과 더 붙어 나오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에서 원시인이 짐승뼈를 부수며 위로 던져진 뼈가 서서히 해가 떠오르던 중 우주선으로 변화하는 격변의 의미와 겹쳐진다. 스탠리 큐브릭에 대한 명백한 오마주다. 차민혁이 가짜 하버드대생인 딸(세리)과 공항에서 조우할 때 흐르던 음악은 <라붐(1980)>에서 소피마르소의 귀에 헤드폰을 씌운 채 들려나오던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였다. 최고의 풍자였다. 해나가 정원으로 추락한 후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 흐르던 슬로우 버전의 ‘We all lie’는 숨을 멎게 만드는 최고의 명장면이다.

아버지의 역할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빌리 엘리어트(2000)>에서 완고한 광부 아버지와 그의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의 꿈을 위해 희생을 감내한다. 영화의 맨 처음 장면 소년은 ‘Cosmic dance’란 곡에 맞춰 위 아래로 뛰기를 반복하고, 마지막 장면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에 맞춰 비상한다. 이에 반해 아버지와 큰 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광부 파업이 저지된 채 막장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땅 아래로

침몰한다. 동료들의 파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돈을 벌기 위해 버스를 타는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큰 형에게 아버지는 절규한다. “우리는 이미 끝났지만 빌리는 아니야, 빌리를 이렇게 끝나게 할 수는 없어.” 아버지는, 부성은 그래서 위대하다. <SKY 캐슬>에서 엄마와 아빠는 모두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다. 부모의 욕망으로 세뇌되어 본인의 의지가 잠식된 채 꼭두각시(마리오네트)가 되어 버린 아이들은 지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체득하게 된다. 그래야지만 미래가 보장되는 캐슬에 안주할 수 있으니까.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욕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스스로의 속내를 비우면 마음의 여백에 무엇이 남는지 자식의 눈을 통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식을 왕자와 공주로 만드는 것이, 대를 이어 욕망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이 진정 원하는 것인지 되새겨보아야 한다. 🍎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사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용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 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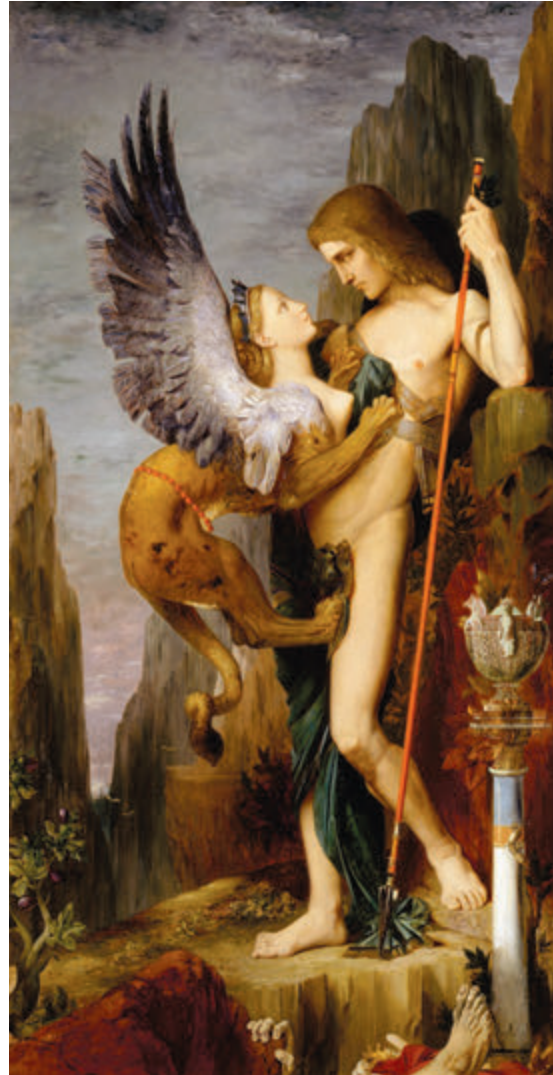


# 귀스타브 모로의 생애와 위암 치료의 역사



글. 박찬혁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과

상징주의 운동의 선구자, 귀스타브 모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성경에서 소재를 가져와 환상적이고 신비한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는 당시 서양 미술의 주류였던 사실주의, 인상주의에서 벗어나 상징주의, 표현주의로 이어지는 ‘주관적인 표현 중심의 미술’을 선보였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주피터와 세멜레> 등이 있다. 그는 일흔을 앞둔 1895년 자신의 집을 미술관으로 개조하며 인생을 정리했고, 일흔 둘이었던 1898년 위암으로 생을 마감했다.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1894



## 귀스타브 모로의 일생

귀스타브 모로(1826~1898)는 파리 건축가인 아버지와 뛰어난 음악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1826년에 태어났다. 그가 15세가 되던 해에 방문한 이탈리아에서 예술에 대한 사랑을 싹틔우기 시작하였고, 18세 때 피코의 지도하에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인 에콜 데 보자르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테오도르 샤세리오와 들라크루아의 화풍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를 그려 1864년 파리의 살롱전에서 메달을 수상했고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다. 그는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 혹은 성경 속에서 작품의 주제를 찾았다. 생애 동안 8,000점이 넘는 그림을 남겼으며, 20세기 초 벨기에 상징주의의 선두그룹인 오딜롱 르동과 장 델비유에 영향을 주었다. 모로는 1891년 에콜 데 보자르의 교수가 되었고, 앙리 마티스, 조르주 루오 등 여러 후학을 양성했다. 그는 미술사의 과도기였던 19세기 후반에, ‘객관적인 묘사 중심의 미술’인 사실주의·인상주의에서, ‘주관적인 표현 중심의 미술’인 상징주의·초현실주의로 이행되는 다리 역할을 했던 프랑스



제우스와 세멜레 1895

화가로, 상징주의의 선구자로 불린다. 말년인 1895년에 파리의 집을 미술관으로 개조하여 자기 기록과 작품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72세가 된 1898년에 위암으로 사망하여 부모의 무덤이 있는 파리의 몽마르트르 묘지에 묻혔다. 모로의 집을 개조한 모로 미술관은 1902년에 공식적인 국가의 미술관이 되었다.

## 위암 진단과 치료의 역사

위암은 기원전 1600년경에 씌어진 에베르스 파피루스(Ebers papyrus) 문서에 처음으로 기술되었고, 기원후 2세기경 갈렌과 관련된 히포크라테스 보고서에도 나타난다. 하지만, 당시에는 암이 어떤 질병인지 잘 알지 못했고 치료는 물론 진단조차도 쉽지 않았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조차도 1821년 사망하기 전 2년간 복통과 구토로 고통을 받았으나 생전에는 병명을 알지 못하였

다가, 사망 후 부검을 통해서 위암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위암 수술은 1879년에 유명한 프랑스 외과의사인 줄레 에밀 페안에 의해 집도되나, 불행히도 환자는 수술 후 5일째 사망했다. 1년 후인 1880년 루드비크 리디기에르가 위암 수술을 집도했으나 환자는 수술 당일 밤에 사망했다. 이후, 1881년에 독일의 외과의사인 테오도르 빌로트가 처음으로 위암 수술을 성공하는데, 환자는 위를 부분 절제하고 남아있는 위와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은 후 26일만에 퇴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개월만에 위암이 재발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위 전체를 절제하고 식도와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법인 위 전절제술은 1897년에 칼 쉐라터에 의해 처음으로 성공하게 되고, 이후 위암의 여러 수술 방법은 20세기에 전 세계로 널리 보급되었다. 위암 수술법의 발전과 함께 위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 방법 역시 19~20세기에 걸쳐 발전했는데, 이는 1868년 독일의 쿠스마울이 지름 1.3cm, 길이 47cm의 금속관을 이용하여 위 점막을 관찰하는 위경(Gastroscope)을 개발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1950년경부터 위경 대신에 위 내면을 촬영하는 소형 카메라인 위 카메라(Gastric camera)가 개발되었고, 1963년에는 가느다란 유리 섬유를 이용한 위파이버스코프(Gastric fiberscope)를 거쳐, 현재는 위 내부 영상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모니터로 전달하는 내시경 기기가 널리 쓰이고 있다. 앞서, 테오도르 빌로트와 칼 쉐라터는 각각 세계 최초로 위 부분절제술, 위 전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했음에도 완치시키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당시 진단 기술의 한계로 위암의 조기 진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귀스타브 모로는 위암 수술이 널리 보급되기 전인 1898년에 위암으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모로가 위암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암이 완치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위암의 조기 진단 비율과 완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2년마다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 혹은 위장조영검사로 위암검진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위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위암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높은 암종이고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초기에 발견한다면 수술적 치료를 통해 대부분 완치할 수가 있다. 아울러, 조기 위암 중에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이 아닌 내시경절제술 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위암 검진이 필요하다. 📺



# 잃어버렸던 청춘의 삶을 다시 선물 받았습니다

신경외과 김영수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항흔의 항흔을 깨트리는 것 중 하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몸이 느려지고 굳어 걸음걸음을 내딛기가 힘들어질 때  
마음도 굳어진다. 파킨슨병으로 6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약을 먹었지만 점점 굳어가는 몸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신임자님은 말한다. 김영수 교수에게 치료받으며  
몸은 물론 마음이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고.

글. 김아름 사진. 김지원



환자분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하셨고요.  
저 역시 저를 믿어주는  
환자분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 김영수 교수님께

7년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 소식을 듣고도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것이겠거니’ 하고 당장 먹고 사는 데 전념했습니다. 꼬박꼬박 약을 먹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3년 정도가 더 지나고부터는 자꾸 넘어지고 다쳐서 일도 못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넘겨지지 못한 형편이라 더 이상의 치료는 꿈도 못 꿔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김영수 교수님을 뵈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선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거라고 하셨고, 저도 꼭 교수님께 수술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감생심, 그리 큰 돈을 구하지 못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하시며 병원에서 수술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 덕분에 저는 더 이상의 고민 없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눈을 떠보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동네 뒷산에 등산을 다닐 만큼 몸이 좋아졌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제 처지를 한탄했는데 거짓말처럼 교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약만 먹으며 불편하게 살고 있었을 테지요. 차가운 세상의 풍파에 굳어있던 제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신 교수님 덕분에, 요즘 제 삶은 봄에 피어난 꽃잎처럼 생기가 돋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 - 신임자 드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제 처지를 한탄했는데 거짓말처럼 교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 신임자님께

처음 뵈던 날을 기입합니다. 진료실로 걸어오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요. 2011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땐, 이미 12년정도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신임자님은 병이 상당히 진행된 3등급의 중증도 환자분이셨어요. 오랫동안 복용하던 약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고 그대로 두면 5년 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1차성 파킨슨병이라 수술만 하면 경과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가족들의 반대였어요. 뇌신경에 전기자극을 전달하는 뇌심부자극술(DBS)을 해야 하는데 처음 듣는 수술법에 대학병원 수술비까지, 가족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제가 더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환자분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하셨고요. 저 역시 저를 믿어주는 환자분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고민했고 병원 내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봤지요. 그리고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술 경과가 더욱 좋았습니다. 전에 투약하시던 약물은 거의 줄었고 지금은 아주 간단한 약물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시죠. 아마 삶의 질은 더 높아질 겁니다. 늘 제게 고맙다 하시지만, 저는 신임자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사시길 응원합니다.

## - 김영수 드림



#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



글. 이준호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과



## 대장암이란 무엇인가요?

대장암은 결장 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대부분 점막에서 발생한다.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는 경우에는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경우에는 직장암이라 하며, 이를 통칭하여 대장암이라고 부른다.



## 증상은 무엇인가요?

대장암의 전신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식욕 부진, 구역 또는 구토, 빈혈, 황달 등이 있고, 국소 증상은 다음과 같다.

- 우측 결장암 : 설사, 소화불량, 복통/복부 팽만, 빈혈, 흑이 만져짐
- 좌측 결장암 : 혈변, 변비/점액변, 배변습관의 변화, 장폐색
- 직장암 : 혈변, 변비/설사, 잔변감, 변이 가늘어짐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발견된다.



## 어떻게 진단하나요?

초기에는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으므로 예방적 대장검사가 조기 진단과 완치의 필수 조건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의 대장암 조기발견을 위한 권고안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만 50세부터 5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가족력이 있거나 용종이 있는 경우, 염증성 장질환, 유전성 암환자의 가족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일반인보다 빠른 연령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장내시경검사는 대장점막의 청결을 위해 시술 전 다량의 하제를 복용해야 하고 시술 중에 통통을 동반할 수 있어 받기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검사자의 눈으로 직접 대장 전체를 관찰할 수 있고 검사 중에 폴립이나 암이 발견되면 즉시 폴립절제술이나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어 대장암 진단에 꼭 필요한 검사이다.



##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대장암은 치료방법으로는 크게 수술적 요법,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이 있다.

**1) 수술적 요법** : 암을 포함하여 암이 전이되는 경로인 림프절을 수술로 절제한다. 림프절 절제는 암이 생긴 부위에 따라 다르며, 암 주변의 혈관과 림프절을 동시에 제거하고 대장을 다시 잇는다. 수술 방법은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이 있으며, 조기암의 경우 내시경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 복강경 수술은 절개부위가 작기 때문에 개복수술에 비해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지만,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복강경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2) 항암화학요법** : 항암화학요법은 일반적으로 항암제 치료라고 잘 알려져 있다. 항암제 치료는 주사 또는 먹는 약을 사용해 약물을 전신으로 전달하여 대장에 있는 암뿐만 아니라 간, 폐 등으로 전이된 곳에서도 효과를 보이는 전신 치료법이다. 항암화학요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더라도 암세포가 미세하게 남아있어 시간이 지나면 재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재발 위험을 낮추고 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보조 항암화학요법이 있고 전이 또는 재발이 된 경우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이 있다.

**3)방사선 요법** : 방사선 요법은 방사선을 이용한 국소적 치료법이다. 직장암인 경우 방사선 요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방사선 치료가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항암제 치료와 병용한다. 두 가지 치료법을 병용하면 화학 약물이 방사선 효과를 증가시켜 국소 재발률은 감소하고, 생존율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 본 원고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지난 2월 8일에 진행한 건강강좌의 내용입니다.
- 한양대학교의료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월 건강강좌 소식은 46쪽 한양캘린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ANYANG NEWS

2018년 12월 ~ 2019년 2월

## 한양대학교의료원

### 베트남 떠이빈서 해외 의료봉사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베트남 빈딘성 떠이빈으로 해외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의료봉사단은 소아청소년과 김용주 교수를 단장으로 비뇨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의사와 고엽제 피해자 치료를 위한 신경과, 재활의학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로 구성된 17명의 의료팀, 의대 학생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월 13일 베트남으로 출발해 14일부터 4박 5일간 현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김 단장은 “위생 및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안과, 내과 분야의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았다”라며 “다음 의료봉사에는 만성질환에 초점을 맞춰 관련 의료진의 참여와 현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한양대학교병원

### 신년 시무식 개최



본원은 지난 1월 2일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 고객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고객 중심 병원 만들기를 다짐하며 ‘2019년 신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광현 병원장은 “의료질 평가 1등급에 걸맞는 우수한 상급의료기관으로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올해에도 더 노력하겠다”며 “특히 환자를 잘 치유하는 병원, 고객이 편안한 병원, 고객이 믿을 수 있는 병원 등 고객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

본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 까지 만 40세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진료한 6,37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본원은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 판정을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 의료영상 품질관리 모범수련병원 인증



본원은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주관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에서 모범수련병원으로 인증 받았다.

본 인증 제도는 특수의료장비인 MRI, CT, 유방촬영 등의 품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수련병원을 평가하며, 본원은 장비, 인력, 시설, 안전관리, 판독, 감염관리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서를 받았다.

### 제17회 QI 경진대회 개최



본원은 지난해 12월 21일 본관 3층 강당에서 기본에 충실한 환자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제17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노성원 QI 실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구연과 포스터를 포함한 총 18개 팀이 참여했고, 이 중 8팀이 구연발표를 했다.

이광현 병원장은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QI 활동으로 환자와 직원 모두가 믿고 찾는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본원은 환자의 안전 관리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표로 매년 QI(Quality Improvement)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에 충실하여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양발달의학센터, 발달세미나 개최



본원은 지난 1월 18일 본관 3층 강당에서 ‘발달장애인의 성문제’를 주제로 2019년 첫 발달세미나를 개최했다.  
안동현 한양발달의학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 중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였던 성 관련 행동 및 성범죄의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라며, “발달장애인이 사춘기 이후 겪는 성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학적 측면은 물론, 행동치료적 접근과 함께 법적 인 측면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

본원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관 3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6일에는 신경과 박진석 교수가 ‘루게릭병의 증상관리’, 2월 23일에는 성명순 사회복지사가 ‘루게릭병의 사회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심리상담’을 주제로 강의했다.

####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건강강좌



본원은 호흡기 및 알레르기질환을 앓고 있거나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8일에는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박동원 교수가 서관 4층 다학제 진료실에서 ‘폐암환자의 건강관리’, 2월 25일에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현 교수가 본관 3층 강당에서

‘기관지확장증’을 주제로 강의했다.

#### ‘신규 간호사의 날’ 개최



본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2018년 입사한 140명의 간호사들을 위한 ‘2018년도 신규 간호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8년 입사한 신규 간호사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축하와 격려를 하기 위해 열렸으며, 축하 영상 메시지와 케이크 커팅,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와 저녁식사가 진행됐다.

#### 휴먼스케이프와 공동연구개발 MOU 체결

본원은 최근 휴먼스케이프와 ‘블록체인 기반 환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환자데이터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휴먼스케이프 솔루션을 통해 수집되는 희귀, 난치질환 증증환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약과 치료제 개발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상호 협력 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휴먼스케이프는 희귀, 난치질환 환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약, 치료법 개발을 위해 제약회사, 연구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직접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헌혈증 전달식 진행



본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동관8층 제1회의실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사랑의 헌혈증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광현 병원장은 “매년 진정한 사랑의 나눔과 사회공헌을 위해 소중한 헌혈증을 기증해 주시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분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기증해주신 헌혈증은 환우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신년 시무식 개최



본원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일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재민 병원장은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로 지난 한 해 신관에 이어 본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하드웨어적으로 새로운 병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새해에는 신평갈수가제 시범사업, 친절 캠페인 등 소프트웨어 발전에 집중해 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뇌전증 주제로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2월 22일 12층 중회의실에서 뇌전증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세계 뇌전증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문진화 교수와 신경과 권혁성 교수가 뇌전증의 원인과 발생기전, 치료, 일상생활 주의사항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문진화 교수는 “흔히 간질로 알고 있는 뇌전증은 불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발생할 수 있어 환자들이 신체적인 손상의 위험은 물론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겪게 된다”라며 “이번 강좌를 계기로 치료법은 물론 일상에서의 주의점을 잘 이해해 돌발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구리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8일에는 재활의학과 박재현 교수가 ‘요통에 좋은 운동과 자세’, 2월 8일에는 외과 이준호 교수가 ‘대장암 바로 알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 다문화 근로자 자녀 무료 건강검진



본원은 지난 2월 19일 구리시 및 남양주시의 이주·다문화 가정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소아청소년과, 건강증진센터, 안과, 사회복지팀 등이 참복결핵검사, A형 간염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특히 성장기에 맞춘 발달검사와 안과(사시, 굴절) 검진도 진행했다.  
김재민 병원장은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인 이주 아동들의 성장발달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경기 동북부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서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한양대학교국제병원

#### 성신여대 지정병원 MOU 체결



본원은 지난 2월 12일 동관8층 제1회의실에서 성신여자대학교와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의료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성신여대 교직원 및 재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경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한양대학교국제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차별화된 진료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 2019년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2월 17일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에서 ‘상생의 소통을 통한 관절염의 진단과 관리’를 주제로 ‘2019년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주요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강좌와 토론이 진행됐다.  
배상철 병원장은 “본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진료의뢰시스템 재검토를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며, 개원가와외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올해도 최신 치료에 대한 강의와 주요 류마티스질환의 경험 많은 ‘명의’들과 서로의 경험과 애로점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 제6회 리뷰코스(HRRC) 개최

본원은 지난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제6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리뷰코스(Hanyang Rheumatology Review Course)’를 개최했다. 이날 리뷰코스는 나흘간 네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총 25개의 주제강의가 진행됐다.  
배상철 병원장은 “본 리뷰코스는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연구원 등 류마티스질환 관련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강좌”라며 “연구 동향, 최신 치료, 다학제 진료 등 다양한 주제로 이뤄진 강의들이 진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물 동정

**김승현 교수팀, 유럽신경과학회 이달의 최우수 논문 선정**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승현 교수팀(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오기욱, 김현영, 김희진, 박진석, 노민영 교수 등)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에 대한 반복된 척수강 내 중간엽 줄기세포(Repeated intrathecal mesenchymal stem cells for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라는 논문이 유럽 신경과학회지 11월호에 ‘이달의 최우수 논문’으

로 소개됐다.  
지난 7월 뇌신경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Annals of Neurology>에 게재된 바 있는 이 논문은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인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journal watch에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로 소개되는 등 세계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문홍상 교수, 요로생식기손상재건연구회 회장 선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비뇨의학과 문홍상 교수가 최근 대한비뇨기과학회 소속 ‘요로생식기손상재건연구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년이다.

**김보경 간호사와 원소진 행동치료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발달의학센터 김보경 간호사와 원소진 행동치료사가 최근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 간호사와 원 행동치료사는 201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선정된 한양발달의학센터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왔다.

**김봉영 교수,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학술지 우수심사자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봉영 교수가 지난 2월 22일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항균요법학회로부터 학술지 <Infection & Chemotherapy>의 심사위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심사자상을 수상했다.

**신영전 교수, 번역서 ‘일본 병원사’ 세종도서 선정**  
한양대학교의료원 예방의학교실 신영전 교수가 최선우, 이준석, 다나카 신이치 등과 함께 공역한 「일본 병원사 (한울, 2017)」가 2018년 후반기 ‘세종도서(옛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에 선정됐다. 이 책은 후쿠나가 하지메(福永 肇) 교수가 일본 병원의 기원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병원의 설립 및 운영 역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18년 12월 ~ 2019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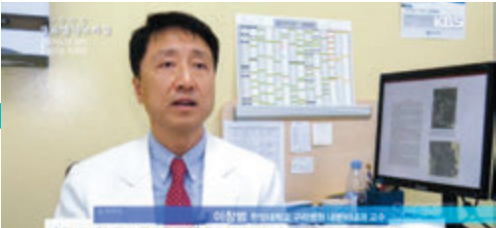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희진 교수**

젊고 생생한 뇌,  
뇌 부자 되는 법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이창범 교수**

체온을 지켜라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노성원 교수**

담배의 달콤한 유혹



SBS 8뉴스  
**고벽성 교수**

후유증 줄일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 장비는  
전국 22곳뿐



YTN 사이언스투데이  
**박시복 교수**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걸음걸이



**한양대학교병원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12월 2일/ 담배의 달콤한 유혹, KBS3R [건강365] 12월 16일/ 중독 **김희진 신경과 교수**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2월 3일/ 젊고 생생한 뇌, 뇌 부자 되는 법, KBS1R [라디오 주치의] 12월 8일·12월 15일·12월 22일·12월 29일·1월 5일·1월 12일·1월 19일/ 치매 제대로 알기,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월 24일/ 겨울에 더 위험하다?! 치매 관리법, KBS1R [라디오 주치의] 1월 26일/ 치매 제대로 알기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12월 6일/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 **하태경 외과 교수** TV조선 [뉴스9] 12월 11일/ 성인 3명 중 1명 비만, 사회적 손실도 年 11조원 **최동호 외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12월 14일/ 장기기증으로 7명 살린故김선웅 **고주연 피부과 교수** KBSWR [김승희의 심상라이프] 12월 15일/ 피부건조 **고벽성 응급의학과 교수** SBS [8뉴스] 12월 19일/ 후유증 줄일 수 있는 '고압산소치료'...장비는 전국 22곳뿐, MBC [뉴스데스크] 12월 19일/ 사고 느는데... '고압산소치료기' 울산·전북엔 '0대', YTN [뉴스N뉴스] 12월 19일/ 강릉 펜션 사고, SBSR [시사전망대] "강릉 펜션 사고...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성은?", TV조선 [뉴스9] 12월 19일/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연간 4천명... '치료 인프라 부족', [고압습니다] 12월 27일/ 3평 당직실에서 쪽잠...대학병원 응급실의 밤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KBS [메디체크] 12월 19일/ 숙취해소 음료는 정말 숙취를 해소할까? **박성열 비뇨의학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12월 27일/ 벅속에 30cm 의로도구?...요로결석 치료 **고용 신경외과 교수** SBS [생활경제] 1월 2일/ 줄기세포 연구 **황환식 가정의학과 교수**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1월 2일/ 나잇살을 없애라 **신진호 심장내과 교수** 채널A [특별기획] 1월 6일/ 방심하면 터진다 고혈압주의보, 1월 11일/ 고혈압주의보 **이창화 신장내과 교수** KBS3R [건강365] 1월 6일/ 만성콩팥병 **김봉영 감염내과 교수** MBC [뉴스데스크] 1월 9일/ 병원 감염이 사망 원인?...11곳에서 세균 검출 **이창학 소화기내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1월 15일/ 과민대장증후군의 치료와 관리 **김영서 신경과 교수** 국방FM [조갑경의 오늘도 좋은날] 1월 31일/ 뇌졸중 **이진규 정형외과 교수** KBS1R [라디오 주치의] 1월 31일/ 운동 중 부상의 치료와 관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권혁희 류마티스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12월 24일/ 닥터와의 진실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1월 3일/ 마지막까지 간호사 안전 살핀故 임세원 교수...추모 발길 **서현민 피부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1월 16일/ 천연염색 부작용 논란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1월 23일/ 체온을 지켜라 **심재향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채널A [나는 몸신이다] 1월 29일/ 거북목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박시복 관절재활의학과 교수** YTN [사이언스투데이] 12월 11일/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걸음걸이

2018년 12월 28일(금)



2019년 1월 14일(월)



Newspaper

2019년 1월 25일(금)



2019년 1월 26일(토)



**한양대학교병원 이오영 소화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3일/ 대한소화기가능성질환·운동학회 공동기획 소화기 기능성질환 바로 알기<상> **이창화 신장내과 교수** 중앙일보/ 12월 10일/ 피부에 문제없는데 가렵다? 담도·신장 이상 의심해 보세요 **김희진 신경과 교수** 조선일보/ 1월 25일/ 저녁 있는 삶... 건강 챙기려면 '호르몬' 주목하라 **김봉영 감염내과 교수** 매일경제/ 12월 18일/ 뜨겁고 매운 국물, 감기에 효과 있을까? **임한웅 안과 교수** 서울신문 [임한웅의 의공학 이야기] 12월 25일/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의 진화, 뉴스1/ 1월 3일/ 젊어지려 '하안검' 수술...눈꺼풀 뒤집혀 고민하는 중년들, 서울신문 [임한웅의 의공학 이야기] 1월 22일/ 죽음의 계곡과 미래 기술 **김경수 심장내과 교수** 조선일보/ 12월 28일/ 새해 절게 살고 싶다면... 쏜대 기질 버리고, 호르몬 늘려라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중앙일보/ 12월 29일/ 스쿼트로 허벅지 다지면 지방대사를 높여져 간도 튼튼 **이창학 소화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1월 8일/ 스트레스 받으면 왜 쉽게 체할까 **김유정 안과 교수** 뉴스1/ 1월 4일/ 예뻐지려 속눈썹 연장하고 파마...눈 건강에 '독' **안희창 성형외과 교수** 뉴스1/ 1월 8일/ 빈약한 가슴 키우려다...가슴성형 부작용 끊어질 않아, 1월 26일/ 운동없고 달모양 복용하니 가슴에 멍울...병원 찾는 남성들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중앙일보/ 1월 14일/ 니코틴·알코올·

탄수화물 중독...새해엔 벗어나 건강하게 삼시다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뉴스1/ 1월 14일/ 다시 불붙은 '간헐적 단식'...진짜 효과있을까?, 1월 21일/ 먹어도 살빠지는 'FMD식단'...건강에 이상 없을까? **김승현 신경과 교수** 한국일보/ 1월 15일/ 치매 예방하려면 3권장.3금지.3활동 333 실천해야 **윤호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경향신문/ 1월 30일/ "천식 환자들에게 미세먼지 일상화는 재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고성호 신경과 교수** 경향신문/ 12월 4일/ 치매 조기발견, '바이오마커'가 핵심이다 **강보승 응급의학과 교수** 경기&뉴스/ 12월 20일/ 남양주소방서, 하반기 감염방지위원회 개최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베이비뉴스/ 12월 21일/ 두 돌 이후 식습관 길들이기, 매일경제 9/ 1월 14일/ 삼성 '큐브',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 호전에 효과 있어, 베이비뉴스/ 1월 22일/ 아이의 영양섭취에도 전력이 필요하다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아시아경제/ 1월 3일/ 알지 못해 두려운, 조현병의 진실, 국민일보/ 1월 25일/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 조현병 환자를 만나보았다, 조선일보/ 1월 26일/ 녹음된 '넌어!' "손 빼!" 2시간 듣자... 참기 힘들었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유대현 류마티스내과 교수** 매일경제·이데일리/ 12월 4일/ 유럽에 허가 신청한 셀트리온 '렘시마SC', 기존 렘시마와 병행해 시장 키운다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질병 극복의 꿈을 안고 새로운 연구로 끊임없이 희망을 찾는 한양대학교의료원과 동행해주시요.

### 후원 분야

- **의료원발전기금**: 의료원의 시설, 장비 투자 등에 사용됩니다.
- **교실발전기금**: 각 교실의 연구, 교육, 학술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진료과발전기금**: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각 진료과의 연구, 교육, 학술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지정기부금**: 원하시는 곳에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시는 기부금입니다.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 후원 방법

- 1. 무통장입금**
  - 신한은행 100-031-815946(예금주: 한양대학교병원)
  - 신한은행 100-031-811944(예금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2. 자동이체(CMS)**
- 3. 급여공제(교직원)**
- \* 온라인 약정**
  -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 > ‘발전기금 참여’ > ‘온라인 기부’ > 약정내용 작성



###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발전기금 납부 방법, 온라인 약정, 기부내역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하게 기부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나눔 실천 현황도 직접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로 바로 이동합니다.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8년 12월 ~ 2019년 1월 기부자 명단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10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고성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희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성명순 한양대학교병원	이상훈 이상훈이비인후과의원	정진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공동의 한양대학교병원	김희수 한양대학교병원	성민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상필 메디안병원	조기섭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공상훈 한양대학교병원	남승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손주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승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명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경현 한양대학교의료원	곽인영 곽이비인후과의원	남영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손한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승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상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자현 정자현내과의원	구선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남정현	신대현 상쾌하이비인후과	이창섭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아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국은영 한양대학교병원	노선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동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영석 서부산선템병원	조영훈 성민병원				
	김금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노정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순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은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현진 한양대학교병원				
	김남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노준모 중앙성모병원(동두천)	신용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창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희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기영문 광명새움병원	김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류기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우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제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지용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재일 제일내과의원	김도윤 새움병원	류제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정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채영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한기(김옥인)	김동윤 한양대학교병원	문지용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태양 전주고려병원	이주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경진 최경진정형외과				
심복택 코코모이비인후과의원	김문성 김문성이비인후과의원	문진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심경아 한양대학교병원	이주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성환 최성환 이비인후과				
오상우 원광대학교	김봉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문홍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심재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준서 밝은빛 안과	최완식 새로운정형외과의원				
유준호 다솜내과	김성재 한양대학교병원	민경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심지훈 양평병원	이진규 한양대학교병원	최정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윤여옥 태암내과의원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기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치원 한양대학교병원	이창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준석 탐이비인후과의원				
이경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승현 한양대학교병원	박두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여광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창우 선한목자병원	최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동규 이동규내과	김양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예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염종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창훈 노원을지병원	최충혁 한양대학교병원				
이영준 태양상사	김영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용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미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혜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혁중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호경 정효경성형외과의원	김영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용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영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화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호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김옥중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원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원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홍용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용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일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정환 회명병원	임종선 성민병원	하루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용호 김용호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찬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유교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장성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동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영애 前한양대학교병원	김우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창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유미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장재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명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운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태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유정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장태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상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중서 남양주한양병원	김윤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혜경 코코이비인후과	유창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전석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승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50만 원 미만 ~ 10만 원 이상	김이석 한양대학교병원	박환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윤명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전용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장희 참조은이비인후과				
	김정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현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윤여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전우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주희 한주희정형외과				
	김지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희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윤원구 윤정형외과	전재범 한양대학교병원	홍성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김지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희철 서울정형외과(박희철)	은창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규성 한일병원	홍의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강민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창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반은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정미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황의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김창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방소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경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수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10만 원 미만				
강정환 강이비인후과의원	김철웅 메디안병원	백은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경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승원 상쾌하이비인후과					
강창남 한양대학교병원	김충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변순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광현 한양대학교병원	정우성 새움병원					
강형구 한양대학교병원	김태완 홍익안과	서승표 성애병원	이규용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재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강홍구 한양정형외과의원	김태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서우영 제천성지병원	이두연 선수촌병원	정재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고란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한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서정심	이봉근 한양대학교병원	정재홍 메디안병원					
고병우 압구정안과의원	김현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서정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상현 한양대학교병원	정진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기부자 명예의 전당

이 명예로운 자리에 귀하의 소중한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10억 이상)



신한은행

(3천만 원 미만~1천만 원 이상)



이민자



차상석



하현영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강윤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선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형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유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정미	한양대학교병원
강지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성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형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은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철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공경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성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혜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은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현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공지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소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황룡	여주세민병원	박은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심요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곽동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수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효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은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대웅	한양대학교병원(퇴사)
권난희	한양대학교병원	김순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용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명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권미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아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희나	한양대학교병원	박점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미경	한양대학교병원
권연희	한양대학교병원	김애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나소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주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석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권오균	한양대학교의료원	김애경	한양대학교병원	나인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지경	한양대학교병원	안선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권유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연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남기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지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유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권혁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영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남순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지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은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권현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영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노광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진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은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권혜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영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노옥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진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정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경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영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노창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진희	한양대학교병원	안정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경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영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류종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춘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안정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경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영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명영숙	한양대학교병원	박현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양길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경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육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문상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혜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양미영	한양대학교병원
김경중	한양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은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문영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방성주	한양대학교의료원	양수용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광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은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문재봉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방지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양은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기라	한양대학교병원	김은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문정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배순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양정자	한양대학교병원
김나영	한양대학교병원	김은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문화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배은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양효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대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인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경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백형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엄혜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도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박경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백혜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여은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동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재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경숙	한양대학교병원	서명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금복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정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경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서병갑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기항	한양대학교병원
김령	한양대학교병원	김정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근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서소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미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명환	한양대학교병원	김정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미숙	한양대학교병원	서소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영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미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주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미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서승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유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미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준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미옥	한양대학교병원	서승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정님	한양대학교병원
김미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중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상혁	한양대학교병원	서영남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지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미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창금	한양대학교병원	박선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서현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홍석	
김미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창복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선영	한양대학교병원	설명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화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미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철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선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성경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희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민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초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선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성혜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옥상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민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춘애	한양대학교병원	박성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손영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우순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민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태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성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손진석	한양대학교병원	우정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병숙	한양대학교병원	김태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소은	한양대학교병원	송은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원혜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보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하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수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송주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원홍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상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현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수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송현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유고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상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현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순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명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유미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상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현창	한양대학교병원	박언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미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유병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석현	한양대학교병원	김형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용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수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유선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이성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화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승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소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장경희	한양대학교병원	최신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수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장선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연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장윤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윤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숙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전경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재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순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전효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정연	한양대학교의료원
이승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경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종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연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기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종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영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대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현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예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순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현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윤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선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혜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윤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수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희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은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은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표은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은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일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하경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은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임중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하은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은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정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상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정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지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수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정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현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승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정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혜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이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정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정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정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구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현남	한양대학교병원
이정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규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현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정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은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함명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정희	한양대학교병원	조인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허정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종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현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허지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주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현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허지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주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조환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허태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주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지미경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허효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진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지은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현순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현주	한양대학교병원	지혜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홍대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현중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진흔희	한양대학교병원	홍민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혜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천경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홍숙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호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천영복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홍은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호용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천은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황성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퇴사)
임경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천은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황성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연희	한양대학교병원	최문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황영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은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미옥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황정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은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민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황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퇴사)
임인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선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황희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정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성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가부금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임주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세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임지영	한양대학교병원	최소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복지기금 모금 캠페인’

# Sharing is happiness

생명 사랑 나눔의 순간,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

한양대학교의료원 이웃사랑 사회복지기금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공제 ·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CMS)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  
취약계층 환우의 의료비 지원

참여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참여방법  
온라인(www.hyumc.com)  
→ 사회복지기금 클릭  
→ 약정서 다운로드 (작성 후)  
→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구 분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후원계좌	100-031-815870 / 신한은행 (예금주:한양대학교병원)	100-031-811976 / 신한은행 (예금주: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연락처	02) 2290-9440	031) 560-2986
팩스	02) 2290-9439	031) 553-5118
이메일	ss9708@hyumc.com	kimyim@hyumc.com

\*사회복지기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강좌

3/15	수면장애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3/23	루게릭병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
3/25	호흡기알레르기	오후 12시 30분	본관 3층 강당
4/5	당뇨망막병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4/27	루게릭병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
4/29	호흡기알레르기	오후 12시 30분	본관 3층 강당



의료봉사

4/25 성수종합복지관 오후 12시 30분 본관 지하 1층



사랑의 음악회

3/29	클래식 기타 연주(유원호)	오후 12시 30분	본관 지하 1층
4/20	예은 중창단	오후 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4/26	한양밴드	오후 12시 30분	본관 지하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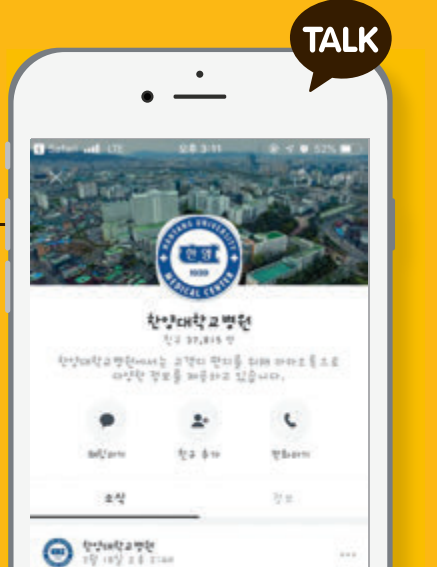
한양대학교병원 친구 추가하고  
나에게 맞는 건강정보  
받아보세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양대학교병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친구추가 하는법

- 1 카카오톡상단 검색창에서  
‘한양대학교병원’ 검색
- 2 ‘친구 추가’버튼 클릭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응급실 : 02 - 2290 - 8283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2 - 2290 - 9717

<http://seoul.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최호순	수, 금	월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월, 수, 토(3주)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항락	금, 토(4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목, 토(1주)	수	간질환
	이강녕	화, 토(5주)	목,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윤재훈	월, 화, 토(2주)	화, 목	담낭, 담도, 췌장
	서원우	금, 토	월, 화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박진화	화, 목	수,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임대현	월, 수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김경수	화, 목, 토(2주)	화, 금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졸거세포치로, 협심증, 고혈압, 부정맥
	신진호	월, 수, 금, 토(5주)	수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중재술
	임영호	수, 금	월,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 및 말초동맥질환, 심혈관 및 대동맥 중재술, 고혈압, 심부전
	박진규	월, 목, 토(1주)	화, 목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허 란	수, 토(3주)	월, 목, 금	심장질환
	차승주	토(4주)		심장질환
	김근호	월, 수(1주), 금, 토(3,4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심부전, 부정, 복막투석
	이창화	화, 수, 금, 토(1,2주)	월, 목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내과 2290-8300	박준성	월, 목, 토(3,5주)	화, 수, 금	일반 신장내과질환
	이준한	목, 토(1,2,4,5주)	월	일반 신장내과질환
	안유현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내분비대사 내과 2290-8300	김동선	월, 수, 목, 토(4주)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수, 금, 토(3,5주)	수~금	일반 내분비대사질환
	윤호주	월, 수, 토(4주)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성 폐질환, 기침, 알레르기, 폐암, 결핵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손장원	목, 토(2주)	월	호흡기질환자관리,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김상현	월, 화, 금, 토(1주)	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만성기관지염, 간질성 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알레르기
	박동원	화, 수, 토(3주)	월, 목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중환자진료, 간질성 폐질환
	이 현	목, 금, 토(5주)	수, 금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암, 결핵, 비결핵항상균폐질환(NTM)
	정승준		화, 금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손장원	월-수, 금	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전종현	월-금	월-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이영열	월, 수	목, 금	만성백혈병, 골수증식질환, 림프종, 골수증, 기타혈액질환
	박병배	화, 목	월, 금	림프종, 다발성 골수증,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노생식기계종양, 육종
감염내과	엄지은	금	월-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김봉영	화, 금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설인준	화, 목	월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뇌전증
	김남수	목, 토(4주)	화	소아심장질환
	이영호	월(구리), 토(3주)	화, 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김용주	월, 목, 토(1주)	월, 목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김진섭	수, 금, 토(2,5주)	화, 목	소아내분비
	김종덕	월, 화, 토(5주)	수, 금	호흡기알레르기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생아 중환자실	박현경	수~금	월-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이현주	월, 목	월-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신경과 2290-8367/ 8368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주한	월, 목, 금	월, 목	뇌전증,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김승현	월(구리)▲, 목	월(구리)▲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금, 토(2주)	화, 수▲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혈착, 안면마비
	김희진	화▲, 금, 토(3주)	화▲, 금	치매 및 인지장애, 뇌졸중, 뇌위염,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불면증
	김영서	월, 수, 토(4,5주)	월, 목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혈착
	오기욱	월-금▲	월▲,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화, 수, 토(2,4주)	목, 금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이상곤	수, 토(1주)	목	일반 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박명강	목, 토(3주)	금	일반 신경과질환
	안동현	수, 토(4주)	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김석현	화, 목, 토(2,4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노성원	월, 금, 토(1,3주)	월, 목	중독질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인지장애, 조현병
	김인향	월, 수	금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이건석	화, 목, 금, 토(5주)	화, 수	양극성장애, 조현병
	김강률	목	화, 목	소아정신의학
	노영석	월, 화, 목, 토(2,4주)	월, 목	아토피 피부병, 여드름, 탈모, 건선
	고주연	수, 금, 토(1,3주)	화, 수, 금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결체조직 질환, 피부암, 건선
피부과 2290-8434	김정은		해 외 연 수	
외과 2290-8444	권성준	수, 금	수	위, 십이지장질환, 외과종양학
	권오정	월	월, 수	이식, 혈관질환
	이경근	화, 금	목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목, 토(5주)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강홍	화, 목, 토(2주)	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정민성	목, 토(3주)	월, 목 (만모름)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하태경	화, 토(4주)	금	복강경/로봇위암수술,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안병규	월, 토(1주)	수, 금	대장(직장)암, 대장항문의 양성질환, 염증성 장질환, 복강경/로봇수술
	정윤경		화, 금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김영학	화, 금	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 혁	수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장효준	월, 수	수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자발성 기흉, 대동맥, 흉강경수술, 로봇수술
	이준호	금	월, 금	대동맥질환,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예크로, 심장이식, 흉부외상
정형외과 2290-8473	이광현	월, 수, 금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화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수	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목, 금	화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김이석	화	화	고관절클리닉, 외상학, 고관절 스포츠 손상, 골다공증
	황규태		해 외 연 수	
	이진규	화, 목	목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최성훈	토	월, 수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주일한		수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2019년 3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김영호	월, 수, 금		인공관절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박태수	월	수, 금	견관절
	박예수	수, 금, 토(3주)	월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박기철	화, 목, 토(4주)	수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이정일	월, 토(5주)	화, 금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 재건외과
	양재혁	목, 토(2주)	화, 수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스포츠손상
산부인과	조영훈	화	월, 목	견주관절, 스포츠손상, 회전근개 질환
	류기영	월, 토(25주)	화, 목	조기진통 및 조산, 고위험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의 진단 및 치료, 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
	정언석	수, 금, 토(1주)	월, 수(2주)	단일공법 복강경수술(난소측, 자궁측), 부인암, 고위험산모
	부혜연	화, 목, 토(3,4주)	수(1,3주), 금	정상임신, 고위험임신
	유재만		화, 목	일반 성형외과
	이창현	월, 화, 목, 토(2,4주)	화, 목	안면기형 및 재건, 피부암, 미세재건수술, 침샘종양, 미용성형
성형외과	장정우	수, 토(1,3주)	월, 금	안면외상, 욕창, 당뇨병, 미용성형
	남영수	월, 수	목	대장항문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이흥기	수, 금	월	혈관대동맥, 경동맥, 당뇨병), 이식, 간담체질환
	박환경	목	화, 금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체질환
	김민규	화, 금	수	상부 위장관질환, 복강경위절제술, 탈장
외과	김형식	월, 목, 토(1-4주)	화	유방, 갑상선질환
	이준호	목	월, 수	대장항문
	조희운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병망막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 토(2주)	월, 수	늑내장, 백내장
	김유정		금	외안부질환, 굴절, 백내장
	임한웅		화	안성형, 사시, 소아안과
안과	신용운	월, 금, 토(3,4주)	수	신경안과, 저시력, 당뇨병망막증, 포도막염
	홍은희	목, 토(1,5주)	월, 목	신경안과, 사시, 소아안과, 저시력, 성형안과
	김정수	월, 목, 토	월, 화	여드름, 주사, 건선, 소아피부질환, 피부알레르기 질환
	서현민	화, 수, 금	수, 목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백반증, 피부외과, 자가면역질환
	이민원	화, 수	금	일반피부질환, 피부알레르기질환, 두드러기, 피부미용
	이승한	월, 수, 토(5주)	목	만성종이염, 난창,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이비인후과	정진혁	화, 금, 토(4주)	수	부비동염, 비종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월, 목, 토(3주)	화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정재호	금, 토(2주)	월, 수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이윤재	수, 토(1주)	화, 금	비부비동염, 비종격만곡증, 알레르기비염,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최홍용	화, 목	수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문홍상	수, 토(3주)	월, 금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비뇨의학과	이승욱	월, 금, 토(1주)	화	복강경수술, 종양, 남성과학
	김규식	월, 토(2,4,5주)	목	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장성호	월, 금, 토(4주)▲	월, 수	근골격계재활,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한승훈	화, 목	화, 목, 금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요통, 오십견, 관절염), 스포츠 의학, 뇌신경재활, 삼킴장애
	박재현	월, 화, 수, 토(2주)●	목●, 금	일반 재활의학과질환, 근골격계재활, 운동치료
	박원희	월~목, 토(2,3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질환
치과	김윤영	화, 금, 토(1,4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심재항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핵의학과	김지영		화	종양핵의학
직업환경의학과	장대원		화	직업성 질환,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영상의학과	김응태	월~금	월~금	혈관 및 비혈관계 인터벤션시술

http://guri.hyumc.com

■ 대표전화 : 1644 - 9118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각종 간질환(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간염, 간경변증, 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위장관 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위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 질환
	은창수	수, 금	월	위질환, 대장질환, 식도질환, 위암, 대장암, 대장양종
	유교상	화, 수, 토(2,4주)	목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박찬혁	목, 토(3,5주)	수, 금	위·식도역류질환, 위암 및 위궤양, 기능성 소화불량, 위암 식도암 치료내경
	안지현	수, 목	화, 금	
	이재곤	화, 금	목	소화기, 위장관질환
	김순길	월, 화, 목, 금	목	임상심장학, 고혈압, 비혈관적 심기능 검사
	박찬철	수, 목, 토(3주)	화	부정맥진단 및 치료, 협심증, 인공심박동기 및 체내삽입형 제세동기 삽입술
심장내과	김현진	금	월, 화	
	신정훈	월, 수, 토(4주)	수, 목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 심부전
	이웅구	화, 토(2주)	월, 수, 금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중재술,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한상웅	월, 목(클리닉), 금	화, 수	만성콩팥병, 당뇨병, 골관절증, 사구체신염, 고혈압, 투석요법
신장내과	이주학	화, 수, 목(토요일), 금	월, 목	전해질이상질환,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고혈압, 부종
	유미연	월, 수, 토(1,3주)	화, 금	만성콩팥병, 당뇨병, 통풍병증, 고혈압
	이창범	화~금	월, 목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골다공증
내분비대사내과	유성훈	월, 금, 토(2,4주)	화,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이혜순	월, 수, 목, 토(3주) 금,토(1주)▲	화,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경피증, 섬유근통
류마티스내과 관절류마티스 클리닉▲	방소영	해	외 연 수	
	권혁희	월, 화, 금, 토(2,4주), 목▲	수, 목, 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루푸스, 통풍, 베체트병, 만성통증
	유현승	수,목,토(1,5주), 월,화,토(3주)▲	월, 화,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만성통증
	김태형	월, 수, 목	화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호흡기내과	문지용	화, 금, 토(1,3주)	월, 목	만성기침, 호흡곤란, 천식, COPD, 결핵, 폐암
	박태선	토(4주)	수	중환자의학, 폐렴, 호흡부전,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여유미	수, 금, 토(2주)	월, 금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종핵자실	내과계	박태선	월~금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외과계	여유미	월~금	외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 목, 토(2,5주)	월, 금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원영웅	월, 수, 금, 토(1,3주)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해외여행자
	김진영	화, 금		감염질환, 불명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해외여행자
	김창렬	화, 수, 금	화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오재원	수, 금, 토(3,5주)	월, 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소아청소년과	문진화	월, 화, 목, 금	화, 목	소아신경질환(경련, 두통, 발달지연)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김남수		월	소아심장질환
	최영진	월, 목, 토(4)	월, 수, 금	소아호흡기질환, 알레르기질환
	강은구	월, 수, 토(1,2주)	수, 목, 금	소아내분비, 성장, 유전대사질환
	이경식	화	목	소아응급, 소아일반질환
신경과	이영주	화, 금	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증, 어지럼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금	화, 수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하지불안증후군, 손저림
	고성호	월, 화, 수, 목	화(2,3주),수	뇌졸중, 신경퇴행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토(1,4주)	월, 목	치매, 뇌졸중, 두통
	권혁성	수, 토(2,3,5주)	월, 수, 금	뇌졸중, 어지럼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용천	화, 목, 토(4주), 수, 목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항병
정신건강 의학과	김대호	화, 목, 토(1,4주)	수, 목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EMDR
	최준호	월, 수, 금, 토(3주)	수	조현병, 조울증, 신경영성학
	이호선	월, 화, 토(2주)	수, 금	노인정신의학, 치매, 인지기능 장애, 일반정신의학
	김재민	수, 목, 토(1주)	월	뇌혈관질환, 두개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신경외과 척추신경외과 클리닉▲	정진환	월, 토(5주)	화, 목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류제일	화, 수, 토(2,4주)	화▲, 금	척추질환(척추척추척추수술), 척추종양, 두부외상
	한명훈	월, 금, 토(3주)	수	뇌종양, 뇌경위기능, 두부외상
	배인석		월, 목	일반 척추질환, 두부외상
흉부외과	노선균	화, 금	수, 금	심장질환(관상동맥, 심장판막질환, 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 동맥류, 말초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등, 흉부외상, 기흉
	남승혁	월, 수	월, 목	흉강경수술, 폐암, 식도암, 양성폐질환, 기흉, 다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 2019년 3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방사선종양학과	전하정	월, 수	화, 수, 목	부인과종양, 유방암, 비뇨기종양
	박혜진	화, 금	월, 화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 림프종, 유방암, 방사선수술
핵의학과	최윤영		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심광섭	화, 금	수	턱알골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	황건규	월, 화, 목	월, 화, 목	턱알골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 수, 목, 금	화, 목	턱알골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법
	한지영	월~금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김주형	월, 화, 목	월, 화, 목	심미교정, 설측교정, 급속교정, 수술교정
	이은혜	월, 수, 금	월, 수,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박훈기	월	목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황환식	화	금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하태경		화	고도비만대사 수술
가정의학과	박훈기	수, 금, 토(2주)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토(4주)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직업환경의학과	이수진	월, 수, 목, 토(4주), 월	월, 수, 목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송재철	화, 수, 금, 토(4주), 월	화, 수, 금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3주)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성인형스틸병, 근염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2,4주)	목,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경피증, 통풍
	김태환	화~목, 토(2,4주)	월, 화	강직성 척추염, 퇴행성 관절염
	성윤경	월, 수, 금, 토(3주)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골다공증, 쇼그렌병
	최찬범	화, 수, 금, 토(4주)	수,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건선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혈관염
	조수경		해 외 연 수	
	김지승	월, 목, 토(1,5주)	수	일반 류마티스질환
	김형영	수, 금, 토(2주)	월, 목	일반 류마티스질환
	남보라	화, 토(3주)	월,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신정민	목	화,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강주연	수, 금, 토(2,4주)	화, 목	일반 류마티스질환
	박시복	수, 금, 토(3주)	월, 수, 금(1,3주)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이규훈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임현영	화, 금	화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박희경	목	월, 목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충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이봉근		목	주관절, 회전근개질환, 류마티스질환, 관절경, 견관절
류마티스안과	김유정	목	월	쇼그렌증후군, 건성안, 류마티스 관련 눈질환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윤호주	화	목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환, 폐결핵
	박훈기		화,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금, 토(2,4주)	목, 금	가정의학
여행자 클리닉	배현주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클리닉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 수	월	뇌종양질환,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 경질환, 척추질환
	김영수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심자신경통 및 통증성 질환, 뇌종양, 방사선수술(노발리스TX)
	백광흠	월, 수, 토(2주)	금	디스크, 요통, 척추관협착증, 척추골절, 척추기형, 척추종양
	이형중	목, 토(3주)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수두증
	전형준	금, 토(1주)	수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종양, 두부외상
	최규선	금, 토(3주)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외상,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연환	화, 목	화	하지재건 외상, 안면외상, 미용성형, 욕창, 액취증
	박성오	월, 토(2,4주)	수, 금	안면외상, 화상, 미세성형, 수부외상, 만성창상, 지방흡입
	양은정	월, 토(1,3주)	수, 목	안면외상(골절 및 신경재건), 수부외상, 선천 기형, 미용성형, 미세재건, 두경부재건
	윤정수	수, 금, 토(5주)	월	일반 성형외과질환
	황정혜	수, 금	월, 목	폐경,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산부인과 2290-8400	최준섭	월, 수, 토(5주)	수, 금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1,3주)	화	고위험임신, 조산,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토(1,3주)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목, 금, 토(2,4주)	화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엄정민	금, 토(2,4주)	월, 수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호진	월, 수, 토(5주)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금지현	월, 화, 목,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이병로	화, 목	목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안과 2290-8570	임한웅	수, 금, 토(1주)	월, 화(구리)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안성준	금, 토(1, 3주)	화, 수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이목아망막증
	김유정	월, 토(2주)	화, 목	외안부, 굴절교정, 백내장
	이원준	월, 수, 토(2, 5주)	금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질환
	박철원	화, 금	화	만성종이염, 난창,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김경래	목, 토(2주)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이비인후과 2290-8580	태 경	월, 수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조석현	월, 화, 금, 토(1주)	수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송창면	목, 토(3주)	화, 목	후두음성질환, 성대질환, 편도질환, 구강질환, 갑상선암, 두경부암
	변하영	수, 토(4주)	월, 수, 금	어지럼증, 난청, 소아이비인후과질환, 이명, 중이염, 안면신경질환
	김동환	월, 토(5주)	금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김응태	화, 목	화, 수	배뇨장애질환, 여성비뇨기질환, 비뇨기암, 요로 결석, 남성성기능장애, 불임
비뇨의학과 2290-8593	박성열	월, 수, 목, 토(1,5주)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윤영은	월, 화, 토(3주)	화, 금	결석, 혈뇨, 로봇수술, 신장암, 신장이식, 최소침습수술, 항암치료
	조정기	화, 금, 토(4주)	월,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김미정	월, 수, 금, 토(3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 저는

---

## 한양대학교의료원의



## 안전동력입니다

**AM 2:00**

응급의학과 고벽성 교수의 시간

언제나 안심하고 믿음 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을 만드는 따뜻한 동력이 되겠습니다.

늦은 밤,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이 실려 옵니다. 센터에서는 응급의학과 교수가 직접 고압산소치료기의 관리, 세팅, 환자 투입, 상태 확인 전 과정을 맡습니다. 2시간 남짓 이어지는 고압산소치료 도 중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의 의식과 혈당을 모니터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의 여지도 매의 눈으로 관찰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짧은 시간,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환자는 다시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벽성 교수에게 이 시간은 온 힘을 다해 새 희망을 일구는 시간입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